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를 통한
과정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6-7세 아동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윤 혜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를 통한
과정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6-7세 아동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cess-oriented
Color Education Program through Wet-on-wet
Watercolor Painting of Waldorf Education: Focusing
on Children from 6 to 7 Years Old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윤 혜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를 통한
과정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6-7세 아동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윤 혜

김윤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익 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홍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v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슈타이너의 교육사상과 과정중심의 발도르프 유 치원	6
제1절 슈타이너의 교육사상과 색채론	6
1. 슈타이너의 생애와 인지학과 발달론	6
2. 상과 광휘(光輝)의 색과 관념적 해석	18
제2절 발도르프 유치원과 과정중심 교육	27
1. 발도르프 학교와 유치원	27
2.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가치	39
제3장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를 통한 색채교육 프로그램	

.....	41
제1절 발도르프 유치원의 색채교육	41
1. 과정중심의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	41
2.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 과정	44
제2절 습식수채화를 이용한 과정중심 수업 프로그램	53
1. 과정중심 습식수채화의 특성과 미술교육적 의미	54
2. 과정중심의 습식수채화 지도안 제시	55
제4장 결론	70
참고문헌	73

표 목 차

<표 1> 건식수채화와 습식수채화의 기법 비교	46
<표 2> 단원 설명	57
<표 3> 학습 효과	58
<표 4> 습식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1	62
<표 5> 습식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2	67
<표 6> 습식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특성	69

그림 목 차

[그림 1] 습식수채화	47
[그림 2] 점토놀이	50
[그림 3] 포르멘 선묘	52
[그림 4] 빨강과 노랑 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한 작품	65
[그림 5] 노랑과 파랑 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한 작품	66

국문초록

현재를 살고있는 유아들은 어려서부터 틀에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에 갇혀서 생활하게 된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발도르프 학교와 발도르프 유치원을 통하여 자연에 가까운 교육을 시도하였고, 많은 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세계 수백여 곳에서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와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예술을 우리나라 6~7세 유아들에게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많은 교육 방식 가운데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활동은 유아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흥미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풍부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감성적 색채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색채를 통하여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슈타이너 색채론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과정중심 미술교육 방식을 토대로 과정중심 습식수채화 지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관련 도서, 연구물, 영상자료 등을 통한 연구로써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슈타이너의 예술 교육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발달론과 색채론, 교육적관점 등을 분석하여 감성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를 7년 주기로 구분하여 나눈 인지학적 발달론의 1단계인 0~7세 사이의 유아는 오감에 의한 모방으로 신체가 발육하는 감각적 존재이므로 감각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슈타이너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색채교육 및 교육 방법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아색채교육에 대한 의의를 고찰하였다. 슈타이너의 인지론과 발달론이 적용된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 방식을 고찰하였다. 셋째,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하는 한국의 교육적 문제점의 대안으로 과정 중심의 습식수채화 색채교육의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감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6~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발도르프 유치원의 과정중심 습식수채화를 통한 심상 표현에 부합되

는 지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이 6~7세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습식수채화 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수업은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정해진 틀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중심으로 물감을 자유롭게 친숙하게 다루게 하여, 습식수채화를 통하여 아동들의 내면세계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인지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과 순수한 색채의 감성과 감성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6~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색채교육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색을 직접 느끼고 감성을 자극하고 자유롭게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cess-oriented Color Education Program through Wet-on-wet Watercolor Painting of Waldorf Education

- Focusing on Children from 6 to 7 Years Old -

Kim, Yun Hye

Advisor: prof. Cho, Yoon Sung, Ph.D.

Department of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fants living in the present are locked up in stereotyped education programs from an early age. Steiner has faced this educational reality and attempted to educate close to nature through Waldorf School and Waldorf Kindergarten, which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In this study, I found out whether the educational arts of Steiner's Waldorf School and Waldorf Kindergarten, which are already proven to be effective in hundreds of places around the world, are applicable to infants aged 6 to 7 in Korea.

Among the many educational methods of Waldorf Kindergarten, art activities for infants are centered on the process-oriented emotional color education that can express the individuality of infants and express their rich emotions in an interesting and enjoyable atmosph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rocess-oriented wet water painting guidance program based on Steiner color theory and Waldorf kindergarten's process-oriented art education method in order to develop infants' ability to

express emotions through color.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he art education of Steiner and the wet watercolor teaching method of Waldorf kindergarten were reviewed through the related books, research materials, video materials and literatures. The need for art education using sensibility was considered by analyzing Steiner's theories of cognitive development, color theory,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The education of senses is all the more important because infants between 0 and 7 years of age, the first stage of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divided by the period of self-establishment, are sensory beings that the body develops by imitation of five senses. Second, the significance of infant color education was consider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by looking for cases of applying the Steiner theory. The educational methods of Waldorf Kindergarten, which are applied with Steiner's cognitive and developmental theories, were considered. Third, as an alternative to Korea's educational problems that place more importance on results than process, a process-oriented wet water color education program was presented to infants aged 6 to 7 years old so that they could freely express their emotions while enjoying free artistic expression. I also examined various aspects of the influence of the wet watercolor education in Waldorf kindergarten on infants aged 6 to 7.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educational values were found for wet-on-wet watercolor painting classes. Based 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children, the wet-on-wet watercolor painting classes at Waldorf kindergarten allow children to freely an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paints in a process-oriented manner, thereby recognizing children's ability to sleep in the inside, through whic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ure color

sensitivity can be expressed.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example of a process-oriented color education program that allows children aged 6 to 7 to feel colors, stimulate emotions and express emotions freely, rather than simply delivering knowledge.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체들은 각각 자신의 독특한 색채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색을 중심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이와 같이 색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음식, 옷, 그림책, 산, 하늘, 나무, 집과 같이 다양한 물체들을 통해서 색을 지각하고 자연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유아들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단순히 본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 느끼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인 상상력, 그리고 사고발달을 기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로웬펠드가 제시한 연령에 따른 그림 형태의 변화과정인 묘화발달단계 (Lowenfeld's development of drawing)는 총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¹⁾ 이 가운데 4~7세 때는 전도식기(pre-schematic stage)라고 하여 이전 단계에서 무질서하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난화기 때를 지나서,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선과 모양으로 일정한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며, 표현된 것과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인물, 나무, 산, 집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리면서 서서히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전도식기 유아들은 감각적인 느낌과 체험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세상을 새롭게 파악하기 시작하며 기억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표상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력이 제대로 형상화되도록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6~7세 유아들은 색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단순한 이해와 감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1) 오철훈, 『아동조형교육: 기초 아동 미술의 이해』, (경기도: Design C+D, 2008)

색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내부에 잠재하는 인식 능력을 깨우고 색을 직접 경험하여 감각으로 색을 배우게 하는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 방식은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서는 ‘놀이와 표현·감상·이해’의 3영역 내용 체계로 되어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슈타이너(Steiner)가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 설립한 학교로서, 초중고 구분 없는 12년제 종합학교이다. 자유를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고, 아동들의 정서 발달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미술과 음악을 중시하여 다른 교과와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적 이념을 받아들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기관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운동이다. 그리고 발도르프 유치원(Waldorf Kindergarten)은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영유아들을 위하여 최초의 1926년에 슈타이너와의 개인적인 만남과 그의 강연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그린네스가 슈투트가르트에 설립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영혼, 정신, 신체의 통합체로 바라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미술과 음악교육을 강조하였다.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은 색채와의 교감을 중요시하는데, 색채체험과 색채교감의 방법으로 습식수채화를 활용하고 있다. 유아가 습식수채화를 통해 색과 교감하고 색채를 경험하는 것은 색채체험이면서 동시에 감정체험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어린이의 정신이자 영혼이므로 색채체험을 통하여 인성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색채체험과 색채교감을 위하여 제안된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는 매우 독특한 활동으로 물감이 가지고 있는 비정형성, 심미성 그리고 개방성을 통하여 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유아들에게 3원색만을 사용하게 한다. 유아들이 스스로 색의 3원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고 이 과정과 경험을 통해 색에 대한 감각과 색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해 준

다. 3원색만으로도 색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삼원색 이상의 색으로 습식수채화를 그리도록 한다. 이 같은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습식수채화는 유아들이 오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만의 색채와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낭만주의와 상통한다.²⁾ 슈타이너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교육적 이념은 발달단계에 있는 유아들에게 자신들의 자아발견과 상상력 고취를 통하여 스스로 내면세계를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은 정신, 영혼, 육체의 조화를 통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발도르프 학교의 습식수채화 교육은 인간의 내면에는 예술성이 있으므로 미술을 매개로 인간이 자아발견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이념을 두고 있다.³⁾ 슈타이너의 색의 관념은 낭만주의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은 동경과 상징이 있는데 동경은 유아의 판타지와 상상력을 활발하게 하고 상징은 미지의 개념을 대상을 위해 찾는 태도를 나타낸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도와주는 도구로 슈타이너가 선택한 습식수채화는 색을 사용한 형태의 사실적 재현보다는 색채의 경험을 중요시한다.⁵⁾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미술교육은 습식수채화, 밀랍으로 만들기 및 포르멘 선묘, 블록 크레파스 그림 그리기가 있다. 습식수채화는 물에 적신 도화지에 수채물감으로 그리는 독특한 회화 수업으로 창조적 조형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자신과 색채 세계와 교류를 하기 위한 활동이다. 물에 젖은 도화지에 물감을 올리면 물감이 가지고 있는 색의 감정, 퍼짐, 울동감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전신의 감각으로 색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을 중

2)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선묘』, (미술교육논총 제10권, 2000).

3) 김성숙,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의 슈타이너 교육예술』, (올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01).

4) 낭만주의는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서 전개되었던 문학 예술 사상에 있어 자유해방을 신봉하는 혁신적 사조이다.

5) 김소라, “슈타이너의 습식 수채화를 활용한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육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7).

요시한 슈타이너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⁶⁾ 빨간색은 사과이고 파란색은 하늘이라고 인식하는 성인의 경우 색채를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습식수채화는 순수하게 색채를 경험하게 하는 미술 활동이다. 유아에게 습식수채화는 색에 대한 놀이이며 감각적 체험이다. 젖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자유로우며 형태에 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는 고정적인 관념의 사고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며 움직임을 갖는 유아의 본성 및 발달에 적합하다. 수채화에 의한 색채 활동부터 자유로운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혼을 활발하게 하고 기쁨의 감정을 생생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점차 창조에의 원동력을 길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색에 대한 체험은 곧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체험이 된다. 인간의 내부에 잠재된 인식 능력을 깨어나도록 하는 슈타이너 교육에서 수채화 수업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체험이다.⁷⁾

이 같은 교육 이념을 가진 발도르프 유치원은 미술과 음악을 바탕으로 한 교육예술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전반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발도르프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미술교육 방법과 내용을 알아보고 6~7세 유아에게 21세기가 요구하는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습식수채화 수업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교육, 특히 습식수채화의 효용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색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6~7세 유아들에게 정서, 인지, 창의성의 발달을 통하여 6~7세 유아의 풍부한 감정과 상상력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채교육의 방향을 습식

6) 정미옥,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사상에 의한 초등 미술교육지도 방안 연구: 수채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7).

7) 김삼숙, “발도르프 학교 습식 수채화를 통한 심상표현 지도 연구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6).

수채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세계 수백여 곳에서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와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예술을 우리나라 6~7세 유아들에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도르프 유치원의 미술교육 방식을 토대로 미술교육 수업안을 작성하여 6~7세 유아들에게 실제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관련 도서, 연구물, 영상자료 등을 통한 연구로써 그 내용과 방법은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슈타이너의 예술 교육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6~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를 통한 심상표현에 부합되는 지도 방안을 연구한다.

셋째,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이 6~7세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증해 본다.

제2장 슈타이너의 교육사상과 과정중심의 발도르프 유치원

제1절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과 색채론

1. 슈타이너의 생애와 인지학과 발달론

1) 슈타이너의 생애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현재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헝가리 지역인 크랄예벡(Kraljevec)에서 태어났다. 슈타이너는 오스트리아의 독일인 철도원이었던 아버지 뜻에 따라 기술자를 양성하는 6년제 실업학교 레알슐레(Realschule)⁸⁾를 다녔다. 레알슐레를 졸업한 후에는 비엔나공과대학(Vienna Institute of Technology)에 진학하였고, 독일 로스토크대학교(Universität Rostock, University of Rostock)에서 189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엔나공과대학과 로스토크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쉴러(Schiller)와 괴테(Goethe) 등 문학과 철학자들과 헤겔(Hegel), 셸링(Schelling), 피히테(Fichte) 등 관념론자들의 사상을 두루 접한다. 이때 슈타이너는 특히 괴테의 작품에 주목한다. 괴테는 식물, 색채 등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자연계의 모든 대상의 배후에는 그 원형(archetype)⁹⁾에 해당하는 관념이 존재함을 확신하고, 그것에 기초해 괴테과학(Goethean science)을 발전시킨

8) 레알슐레(Realschule)는 독일의 실업계 중학교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띠는 6년제 실업학교이다. 한국에서는 '실과학교'라고도 번역되어 불린다. 독일에서는 4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4년 교과과정인 Grundschule에 진학한다. Grundschule를 수료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가운데 한 곳으로 진학하게 된다.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9년 교과과정인 김나지움에, 실업교육은 6년 교과과정인 레알슐레에, 직업교육은 5년 교과과정인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한다.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순으로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은 김나지움 8%, 레알슐레 17%, 하우프트슐레 75% 이다.

9) 슈타이너 저서에 나오는 원어는 독일어로 "Urpflanze"로 표현되어 있다.

학자이다. 1884년에서 1897년 사이에 발표한 괴테의 과학 작품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슈타이너는 괴테의 과학에 대한 접근법을 이론이나 모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상학(phenomenology)¹⁰⁾적 성격으로 제시했다. 그는 「The Theory of Knowledge Implicit in Goethe's World-Conception」 (1886)과 「Goethe's Conception of the World」 (1897) 등의 여러 저서에서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특히 실험이 중심인 자연과학에서 식물생물학(plant biology)을 활용하여 괴테의 접근 방식에서의 변화를 강조하였으며, 생물학적 원형(biological archetypes, Urpflanze)을 찾으려면 정확한 지각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¹⁾ 슈타이너는 괴테 과학을 바탕으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사이를 관련짓는 인지학(Anthroposophie)적 사상을 확립해가기 시작한다.

슈타이너는 문학평론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지만,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94년에 출간한 『자유의 철학』¹²⁾(*Die Philosophie der Freiheit, The Philosophy of Freedom*)¹³⁾에서부터이다. 『자유의 철학』의 제1부에서는 인간사상의 자유에 대한 기초를 고찰하고, 지식과 인식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지식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사고의 역할과 신뢰성을 탐구한다. 제2부에서는 슈타이너는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고, 그가 '윤리적 개인주의'라고 묘사한 도덕적 철학을 전개한다. 이 중구조로 구성된 이 책은 헤겔의 자유에 대한 서술 방식과 닮았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본질적인 면에서 헤겔과 다르다.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 제4장

10) 현상학(phenomenology)은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에 의해 창시된 철학운동의 하나로, "사상 그 자체로 돌아가라"를 모토로 삼는다. 여러 가지의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그러한 것으로서 의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의식이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11) Steiner, R., "The Philosophy of Freedom: The Basis for a Modern World Conception," this translation based on the 12th German edition, The Rudolf Steiner Press, 1964; Hemleben, J., "Rudolf Steiner: A documentary biography," Henry Goulden Ltd, 1975.

12) 슈타이너, 『자유의 철학』,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07).

13) 처음에는 독일어로 출간되었는데, 제목은 *Die Philosophie der Freiheit* 이었다. 그 후 second edition은 1918년에 출간되었는데 그때부터 영어제목이 함께 달렸는데, *The Philosophy of Spiritual Activity, The Philosophy of Freedom, Intuitive Thinking as a Spiritual Path* 등 3가지로 알려졌다.

에서 본인의 개념이 헤겔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스스로 결정한 사고의 본질에 대한 나의 발언은 단순히 개념으로 옮겨질 수 없다. 나는 이 개념을 원초적이고 독창적인 것으로 여기는 헤겔과 내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다.

My remarks concerning the self-supporting and self-determined nature of thinking cannot be simply transferred to concepts. I make special mention of this, because it is here that I differ from Hegel, who regards the concept as something primary and original.¹⁴⁾

슈타이너는 생각의 활동은 생각에서 결정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다. 슈타이너는 세상의 외형만 반영하는 인식과 함께 세계의 내적 본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발상을 통일해야만 진정한 현실의 그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¹⁵⁾ 그는 자유는 이상과 외부 현실의 제약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제안하여, 그 사람의 외부 행위가 도덕적 상상력에 의해 영감을 받는다고 하였다.¹⁶⁾

이같이 슈타이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외형인 물질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본성의 세계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서 연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이후 발도르프 학교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시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눈에 보이고 짚 수 있는 사실과 대상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내적 본성 세계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서 연계하려고 노력하였다. 슈타이너의 주된 관심은 정신이라는 실재에 도달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과학적이고

14) Steiner, R., "The Philosophy of Freedom: The Basis for a Modern World Conception," this translation based on the 12th German edition, The Rudolf Steiner Press, 1964. Chapter 4.

15) *ibid.*, Chapter 5.

16) McDermott, R. "The Essential Steiner: Basic Writings of Rudolf Steiner," Harper & Row, 1984.

객관적인 인식에 의한 것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는 신지학(Theosophy)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슈타이너는 괴테 작품의 바이마르판 전집(Weimarer Goethe-Ausgabe) 출판을 위해 1889년 독일 바이마르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여러 책을 출판한다. 1891년에는 독일 로스토크대학교(Universität Rostock, University of Rostock)에서 『인식론의 근본 문제-피히테의 인식론과 관련하여』(The Fundamentals of a Theory of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ichte's Scientific Teaching)로 박사학위(Ph. D)를 받는다. 이 박사학위 논문은 슈타이너의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철학』(The Philosophy of Freedom)¹⁷⁾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슈타이너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은 괴테 과학 뿐만 아니라 신지학(theosophy)도 포함된다. 그는 정신세계의 실재를 확신하여 1902년에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에 가입할 만큼 신지학에 관심이 많았다. 신지학(theosophy)은 그리스어인 theo, 즉 “신(god)” 혹은 “신성한(divine)”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지혜(wisdom)”라는 뜻을 가진 sophia로 구성된 용어로, “신들의 지혜” 혹은 “신성한 지혜”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지학협회는 헬레나 블라바츠키(Blavatsky)를 중심으로 1875년 설립되었는데, 이전의 신지학자(theosophist)들, 특히 AD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와 알렉산드리아 네오플라토닉 철학자(Neo-Platonic philosopher)들에 이어 신지학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단체다. 그것은 또한 Vedānta, Mahayana, Qabbalah, Sufism, 불교와 같은 더 넓은 종교 철학을 포함한다. 이렇게 폭넓은 여러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까닭에 신비주의적인 사상 철학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지학은 종교 철학과 신학의 합리주의를 반대하고,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인식능력을 넘어서는 신비적인 계시와 직관에 의해 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 깊은 뜻을 파헤치려는 것으로, 또한 인간 문

17) Steiner, op. cit.

화의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타이너는 1899년에 괴테의 동화 ‘녹색 뱀과 아름다운 릴리’의 난해한 내용을 논의하는 「괴테의 비밀계시」 (Goethe's Secret Revelation)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Brockdorff 백작과 백작 부인이 그를 니체(Nietzsche)를 주제로 하는 신지학자 모임에 연설을 초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슈타이너는 1902년에 새로 구성하게 된 신지학회 독일지부의 부문장이 되는데,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정식으로 신지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그는 신지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이 학회에서 그는 2번째 아내인 Marie von Sivers를 만나서 1914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 1904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신지학회의 책임자로 지명된다.

주류 신지학과와는 대조적으로 슈타이너는 유럽 문화의 철학적, 신비적 전통을 바탕으로 영성에 대한 서구의 접근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슈타이너가 유럽 전역을 돌며 자신의 영적 과학에 대해 강의하면서, 슈타이너의 지도 아래 독일식 신지학회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 기간동안 슈타이너는 신지학과를 창시한 블라바츠키의 용어를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고, 그의 영적 연구와 가르침을 서양의 난해하고 철학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인 접근법을 유지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Leadbeater와 Besant가 주장하는 Jiddu Krishnamurti가 새로운 미륵으로 세계의 지도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1912년부터 슈타이너와 독일지부의 상당한 회원들이 신지학과와 결별하고, 인지학회(anthroposophical society)를 결성하게 된다. 여기서 새로 출발하게 된 ‘인지학(anthroposophy)’의 이름은 슈타이너가 1856년 빈에서 출판된 오스트리아 철학자 로버트 폰 짐머만(Robert von Zimmermann)의 작품 제목에서 따왔다.¹⁸⁾

18) Steiner, R., “The Riddles of Philosophy,” 1914, Chapter VI, “Modern Idealistic World Conceptions.”

2) 슈타이너의 인지학

슈타이너는 정신세계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종교적 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인간 내면의 인식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적 질문을 던지며 정신적인 실재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신의 계시와 직관을 중요시하는 신지학과는 달리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객관적인 과학에 기초하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점 때문에 슈타이너는 1912년 신지학회를 떠나서 1913년에 인지학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 철학인 인지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슈타이너의 인지학회는 급속히 성장한다. 슈타이너는 그가 에두아르 슈레(Edouard Schure)와 함께 쓴 연극 공연 등이 포함된 연례 컨퍼런스를 위한 예술적 터전이 필요하다는 요청 하에 연극과 인지학회 중심지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1913년 스위스 도르나흐(Dornach)에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한 첫 번째 괴테아눔(Goetheranum) 건축을 시작한다. 이 목조건물은 건축학적으로 우주의 영적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장인정신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건립되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지에서 온 봉사자들은 괴테아눔의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완성되었으나, 1922년 12월 31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타게 된다. 화재 이후 슈타이너는 두 번째 괴테아눔을 콘크리트로 기반하여 설계하였으며, 이는 그가 죽은지 3년 만인 1928년에 완공되었다.

슈타이너는 1913년 베를린에서 도르나흐로 이주하여 평생 임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의 생애를 인지학의 발달 과정 측면에서 보면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제1기에 해당하는 1902-1909년은 슈타이너가 그동안 쌓아온 내적 경험을 개념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시기였다. 이 시기에 출판된 『신지학』(The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supersensible knowledge of the world and the destination of man)¹⁹⁾, 『어떻게 초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확

득할 것인가』 (Knowledge of the Higher Worlds: How is it achieved?²⁰), 『신비학개론』 (Occult Science: An Outline)²¹) 등에 나타난 저술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기에 해당하는 1910-1916년은 인지학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시기에 네 편의 신비극을 만들었으며, 오이리트미(eurythmy)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개발하는 등 인지학의 예술적 형태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오이리트미는 그리스어로 ‘좋은’, ‘조화로운’이라는 뜻의 eu와 리듬을 의미하는 rhythm이 결합된 단어로 유티드미라고도 한다. 발도르프 수업 내용에도 포함된 오이리트미는 내면의 소리를 몸으로 나타내는 동작 예술 활동으로 ‘보이는 노래’, ‘보이는 대화’, ‘몸으로 해석된 대화·노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오이리트미의 탄생과 발전』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Eurythmy), 『눈에 보이는 노래로서의 오이리트미』 (Eurythmy as visible speech) 등이 있다.

슈타이너는 제3기에 해당하는 1917-1923년의 시기에 그동안 집중해왔던 정신세계와 내적 경험에서 나아가 이를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삼중적 사회질서 운동’과 1919년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의 개교, 인지학 입문 코스 및 오이리트미 기초 강좌, 교육학 강좌, 특수교육에 관한 강좌의 개설 등이 있다. 교육 외에도 의학·농학 등의 분야에서 인지학적 성과를 적용하여 의학 관련 강좌, 유기 농법에 관한 강좌 등을 개설하는 등 슈타이너에게는 인지학적 실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24년 유럽 각지로 순회강연을 다녀온 후 슈타이너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연과 자서전을 완성하는 일을 지속하다가 1925년 64세로 삶을 마친다.

19) Steiner, R., “The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supersensible knowledge of the world and the destination of man,” 1904.

20) Steiner, R., “Knowledge of the Higher Worlds: How is it achieved?,” 1909.

21) Steiner, R., “Occult Science: An Outline,” 1909.

슈타이너 탄생 100년이 되던 1961년에 그의 저작이 전집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여 1990년까지 정리된 전집(Gesamtausgabe: GA)이 354권에 이른다. 별도의 3권은 전집의 가이드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슈타이너의 전기 요약, 각 전집의 내용 요약, 그리고 용어 색인 및 인명 색인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어로 쓰인 전집은 현재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²²⁾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초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정신과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내적 경험을 어떻게 인식으로 전달하는가’에 주목하였다. 그의 인지학 구상은 7살 때 경험했던 체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역 대합실에서 환상을 통해 먼 곳에 살던 이모의 자살을 생생하게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슈타이너는 이 경험을 계기로 자연 속에 영혼들과 초감각적 세계가 실재한다고 의식하였다고 한다. 9살에는 기하학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기초를 마련, 초자연적 현상에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대학 진학 후에는 슈뢰어(Karl Julius Schröer, 1825-1900) 교수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괴테의 자연과학에 집중한다. 슈뢰어 교수의 추천으로 그는 1883년 『독일국민문학』(Deutsche Nationalliteratur) 대전집의 출판에서 자연과학 분야에 협력하면서 본격적으로 괴테와 괴테의 자연과학 접근 방식을 연구하게 된다. 슈타이너가 자신의 인지학 이론의 선구자로 망설임 없이 괴테를 언급함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 있어 괴테의 자연과학은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2) 한국에서는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인지학을 한국에 알리고자 2000년에 발족하여 2008년에 사단법인이 되었다.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도 2016년부터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슈타이너 전집(GA) 354권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서 번역 출판하고 있다.

3) 슈타이너의 발달론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로 구분하고, 이들이 각각 7년의 기간을 두고 각각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사람의 ‘물질체’, 즉 물리적 신체는 출산 전에 태내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신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숙하다가 ‘물리적 신체’의 탄생과 더불어 외부 환경에 노출된다. 다음으로 ‘에테르체’는 ‘생명체’라고도 하는데,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넘어가는 이같이 시기, 즉 7세 경에 탄생한다. 다음으로는 ‘감정체’라고도 부르는 ‘아스트랄체’인데, 이 역시 7년의 기간을 두고 약 14세 경인 사춘기에 탄생하며, 마지막으로 ‘자아체’도 21세 전후로 탄생하고 7년 후인 약 28세에 발달이 종결된다. 이렇듯 슈타이너는 각각의 인간 발달단계를 7년의 주기를 두고 분류하여 각각의 단계를 영유아기(0~7세), 아동기(7~14세), 청소년기(14~21세)로 구분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 또한 이 발달단계에 맞춰 세 단계로 구성된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학적 발달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출생부터 약 7세까지의 영유아기를 가리킨다. 이때는 물질체가 탄생하여 성숙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모든 교육이 신체적 감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물질체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체를 의미한다. 이 기간동안 사람은 내장기관이 자기 위치를 잡아가면서 올바른 형태를 갖추 수 있도록 생의 다른 주기에 부여되는 과제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과제, 즉 신체와 오감의 발육을 도모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몸의 성장과 오감의 발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슈타이너는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익히는 0~3세’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기는 출산 전과는 달리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외부 세계의 힘과 요소가 도맡아야 한다. 특히, 이제 막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이자 전 생애를 통틀어 ‘받아들이는 활동’이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온화하고 비교적 자극이 적은 ‘보호막’과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 온화한 환경과 보호

자의 밝은 표정, 그리고 참된 사랑은 신체기관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 다시 말해 영유아시기는 열린 감각을 통해 물리적인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받아들이므로, 이때 겪은 경험과 의식은 주변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에 의존한다. 그 결과 영유아는 받아들인 감각을 모방하고, 학습한다. 슈타이너는 영유아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모방’과 ‘모범(본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가장 모방에 능한 동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²⁴⁾ 유아는 이렇듯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을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 앞서 언급했던 ‘보호막’과 같은 환경이 중요한 이유이며,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일상생활이 중요한 이유이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으로 가정에서 매일 하는 집안일을 추천하는 것과 발도르프 어린이집의 환경이 일반적인 가정환경과 유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인지학 발달의 두 번째 단계는 7세부터 약 14세까지의 아동기를 가리킨다. 이 단계는 물질체의 발달이 완료된 후 에테르체가 탄생 및 성숙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에테르체는 ‘생명체’라고도 불리는 신체의 모든 생명 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기억, 습관, 기질, 성향, 감정 등을 포함한다.²⁵⁾ 물질체의 발달은 육체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힘이 작용했다면, 에테르체부터는 영혼과 정신을 중점적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는 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 스스로 내적인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되므로, 이러한 감정과 정신 세계를 적절히 성숙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은 감성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억력, 음악적 감각, 창의력, 예술적 형상화, 회화적 묘사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완성된 도덕을 아동에게 주입해

23)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양역관 역, (물병자리, 2000), p. 56.
 24) *ibid.*, p. 56.
 25) *ibid.*, p. 9.

서는 안 되며, 스스로 생각과 감정이 형성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특히 기억력의 형성과 강화가 중요하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발달의 세 번째 단계는 14세부터 약 21세까지의 청소년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감정체’라고도 불리는 아스트랄체가 탄생하고 성숙한다.²⁶⁾ 다시 말해, 그동안 보호막에 쌓여있던 아스트랄체가 나옴으로써 내적인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서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신만의 이상을 발견하게 되며, 시기, 비판, 토론 등의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는 관심과 취미를 발달시키거나, 독립적인 판단을 하려고 주변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감정체’가 완성되면 청소년의 내면세계가 안정되면서 이른바 ‘사춘기’가 종결된다. 교사는 인간으로서 학생들 앞에 서게 되며, 이 시기부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전문 교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슈타이너는 발달의 세 단계에 따라 각각 교육의 특성을 달리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간’으로 교육하고자 했다. 제1단계에서는 ‘의지’를, 제2단계에서는 ‘감정’을, 제3단계에서는 ‘사고’를 발달시킴으로써 의지, 감정, 사고를 지닌 ‘자유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²⁷⁾

슈타이너는 1908년부터 이듬해 1909년까지 인지학적인 인간론인 ‘기질의 비밀’과 관련된 세 개의 강연을 하였다. 이때 시작된 슈타이너의 기질론은 1922년 옥스퍼드 강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교육 사상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질론은 인지학적 인지론의 중심 영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형이상학적 우주론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는 기질론에 대해 경험적, 현상학적이 아닌 오로지 사변적으로만 전개하고 있는데, 다음의 문장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하강하고 있는 아스트랄체에 의해 에테르체에게 아로새겨진 속성들이 인간의 기질의 토대를 굳힌다.” 슈타이너는 기질의

26) *ibid.*, p. 9.

27) *ibid.*, p. 10.

기초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의 짜임새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아스트랄체는 인간의 우주적 기원으로, 인간은 여러 차례의 환생을 거치며 정신세계에서부터 육체의 탄생을 거쳐 인간의 몸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는 기질론을 인간의 우주적 기원과 현세의 실존 사이의 매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슈타이너의 기질론은 윤회와 카르마라는 신지학적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슈타이너는 기질을 인간의 ‘본질적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신세계로부터 내려온 것과 조상에게서 신체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가 결합한 전생의 결실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전적 요소와 정신세계의 결합, 혹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4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다혈질(sanguinisch), 점액질(plegmatisch), 담즙질(phlegmatisch), 우울질(melancholisch)로 구분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4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두가지의 우세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르며, 또 발달단계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기질의 형태가 바뀌거나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기질의 형성은 물질체와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서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아스트랄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면 다혈질 기질이 생긴다. 우울질 기질은 물리적 신체가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는 무거움을 가지고 에테르체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형성된다.²⁸⁾ 반면, 물질체나 아스트랄체 및 자아에 의한 영향력이 에테르체에게 분명히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점액질 기질이 형성된다. 이러한 네 가지 기질의 형성 정도와 주변 환경에 의해 더욱 자극되거나 억제되는 경우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성과 경향성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할 때에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 드러나는 개인 특성을 알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어떤 특정한 기질을 억제하려고보다는 기질이 가지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28)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의 기초 인지학(Anthroposophie) 연구,”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상과 광휘(光輝)의 색과 관념적 해석

1) 색채의 상(像)과 광휘(光輝)

슈타이너는 화가들을 위한 강연 『색채의 본질』²⁹⁾에서 색채의 상(像)과 광휘(光輝)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슈타이너는 근대과학이 말하는 ‘빨주노초파남보’의 색 스펙트럼에 대해 단순히 색을 나열하고 있을 뿐, 색채 상호 간의 작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네 가지 상(像)의 색과 여타 광휘(光輝)의 색들을 상하좌우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괴테의 색채론은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이라는 신비에 기초해 있다. 만일 빛의 작용 속에 어둠이 결합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속에서는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주에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는 비밀 중의 하나는 빛과 어둠이 그물의 눈처럼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연금술이다. 어둠이 빛을 능가할 때 파랑에서 보라가 나타난다. 양자가 균형상태에 놓여 있을 때 녹색이나 노랑을 띤 풀색이 생겨난다. 빛이 어둠을 능가할 때 빨강 또는 귤색이 생겨난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네 가지 상의 색은 흰색과 검은색, 녹색과 살색으로 구성된다.³⁰⁾ 괴테의 색채론에서 기초한 슈타이너의 색채는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 아래 빛이 반사된 결과물로 색이 구현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영어 뜻의 상의 성격을 가지는 네 가지 색채가 흰색, 검은색, 녹색, 살색이다. 흰색은 빛 또는 영(靈)의 혼(魂)적인 영상이다. 일반적인 색채가 빛이 사물의 표면에 반사되면서 표현되는 것과 달리 빛의 대표적인 태양광, 백일광인 흰색은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색의 지각을 통해 빛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빛 그 자

29)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양역관 역, (물병자리, 2000), pp. 29-50.

30) 마그리트 위네만·프리츠 바이트만,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수업』, 하주현 역, (도서출판 푸른씨앗, 2018), p. 203.

체는 색이 아니되 눈 앞에 놓인 흰색을 통해 빛으로 인도된다. 이러한 빛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영으로 이끄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즉, 인간의 영적 부분은 “비추어져 나오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흰색은 영의 혼적인 상의 색이다. 반면, 검은색은 죽음의 영적인 영상이다.³¹⁾ 이는 검은색이 어둠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운동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식물이었던 나무가 숲이 되면 생명이 떠나갔음을 검은색은 생명에 대한 이질적이자 적대적인 색이다. 그러나 검은색 또한 무언가의 본질적인 색으로, 숲 또한 숲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온전한 검은색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어둠 속에서 영이 작용하고 그 속에서 활동의 장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죽음을 대표하는 겨울과 맞닿는 검정에 유일하게 이입될 수 있는 것이 검은색이다.³²⁾

다음으로 빛과 어둠을 의미하지 않는 녹색과 살색은 어떠한 상의 색인가. 이것은 생명과 혼에서 기인한다. 녹색은 죽어가는 생명의 상이다.³³⁾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가지는 녹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식물이 띄고 있는 녹색을 고유한 색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녹색은 식물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즉, 녹색은 식물의 본질적인 색채 표현이기는 하지만, 식물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식물이 가지는 에테르체를 제거하였을 때 그저 하나의 무기질, 물질체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식물은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본래적인 생명 존재로서 그 본질이 생명에 있으며, 물질체로부터 기인하는 녹색은 우리가 눈 앞에서 빛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의 영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슈타이너는 녹색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영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살색 또한 인간의 물질체를 표현하는 생명의 상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 이는 동물과 인간이 가지는 혼이 가지는 차이점 때문이다.

31) *ibid.*, p. 207.

32) *ibid.*, p. 209.

33) *ibid.*, p. 206.

동물과 인간은 식물과 같은 생명체이면서 혼(魂)을 가진다. 또, 인간은 거기에 덧붙여 영(靈)을 가진다. 그러므로 광물과 식물, 동물과 인간이라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생명이 그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³⁴⁾ 즉, 인간의 피부에서 나타나는 살색은 생명이 본질이 아닌, 내적인 혼에서부터 표현되는 영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인물의 초상화나 사진을 보면서 이를 특정 인물 그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인물의 모상에 그칠 뿐 본질적인 무언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식물의 녹색은 눈앞에 비치는 식물이 가지는 생명의 영상이며, 살색은 인간의 정신세계, 즉 혼적인 부분이 육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겉으로 표현되는 혼의 영상이다. 그러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물질적인 차원인 육체, 물질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식물의 본질이 녹색이 아니라고 해서, 그 식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녹색을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서 철저히 제외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색채 탐구의 기본자세인 “색채를 떠나서는 결코 색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없다.”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라는 환경에서 육체인 피부를 관찰함에 있어서 단순히 피부에 나타나는 색채를 통해 푸르거나 붉다는 피상적 인식 외에 피부의 색채에 내재된 어떠한 질서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세계인 혼을 육체라는 물질체 속에 붙어 넣음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리된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색채는 곧 간접적인 내면 체험을 도와주는 지표가 된다. 즉, 인간은 내면에 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혼의 운동은 곧 육체라는 물질적인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과랴게 질린 안색’이나 ‘붉게 익은 얼굴’은 그 안색에 해당하는 혼적인 운동을 겉으로 표현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육체는 그 자체로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혼이 품고 있는 내적 경험의 표현이자 살아있는 상이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나타내는 살색이란 살아있는 인간의 혼이 육체를 통

34) *ibid.*, pp. 215-216.

해 살아있음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 된다. 혼이 없는 인간은 죽음을 뜻하며, 죽은 인간은 더이상 ‘살색’을 품지 않는다. 즉, 살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으로부터 혼이 떠나갈 때 인간의 피부는 녹색에 가깝게 변하며(죽음으로 나아가는 생명), 완전히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까맣게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죽음).

슈타이너는 이렇게 4가지 상의 색을 언급하면서 색채의 본질은 “자연 그 자체에 맺힌 영의 상”이라고 주장했다.

“자연계에는 생명의 세계, 죽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혼재한다. 나의 감각은 흑에서 녹색으로, 살색으로, 흰색으로 상승해 가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나를 둘러싼 주위 세계를 영의 상으로써 감지한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한 나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정신계라는 다양한 현실 세계를 눈 앞에 마주한다. 자연은 이러한 현실 세계를 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색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다. 색채 세계는 자연 그 자체 속에서조차 영상이다.”

그는 색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채가 현실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영상임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생명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고유의 색채로 표현하고자 자기 자신에게 색채를 부여할 때, 이것이 외부로 녹색이라는 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필연이자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때, 색이 어떤 영상으로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와는 다른 무언가에 비쳐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생명적인 것이 죽음을 통해 비쳐 나올 때, 생명의 영상으로서 녹색이 나타난다.³⁵⁾ 이때 빛나는 것은 생명이고, 그림자를 던지는 것은 죽음이다.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죽음의 상으로 검은색이 나타나게 된다. 생명적인 것이 그림자를 던지고, 그 속에서 혼이 빛날 때는, 혼의 상으로서 살색이 나타난다. 혼이 그림자를 던지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이 빛날 때에는 영의 상으로서 흰색이 나타난다. 이렇듯 슈타이너는 상의 성격을 가지

35) *ibid.*, p. 209.

는 네 가지 색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 영과 혼을 비추는 영상으로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녹색을 인식하는 주관적인 인상과 근대과학의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객관적 파동 현상으로 색채를 설명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오류를 범하는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슈타이너는 이 네 가지 상의 색채 외의 광휘(光輝)의 색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흑색, 백색, 녹색, 살색은 상을 표출하는 색으로, 그 자신 속에 정지하고 있는 녹색과 운동성을 가지는 살색, 폐쇄적인 흑과 백으로 구성된다. 반면, 적색과 황색, 청색은 내적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 사물의 내적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어 빛내는 광휘의 색이다. 이 3색이 가지는 내적 운동성은 살색이 가지는 운동성과는 다르다. 살색은 자신을 해체하려는 성질을 가지지만 이것이 내적 운동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휘의 색 중 황색, 즉 노란색은 방사하는 색이다.³⁶⁾ 중심에서 주변으로 방사하고, 그렇게 확산되면 될수록 벌어지는 성질을 가진다. 어떤 면 위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어딘가를 향하여 방사하려는 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의 혼을 향해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 전면이 노랗게 칠해진 공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만약 일률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의 성질에 맞게 중앙은 짙게, 주변부나 경계선에 가까워질수록 열게 칠해야 노란색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노란색은 다른 색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다.

청색은 내부를 향하여 빛나는 색이다. 노란색이 중심에서 주변부로 퍼지는 운동성을 가졌다면, 청색은 정반대로 주변에서 중심을 향해 방사하는 운동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청색의 내적 본성은 노란색과 정반대이다.³⁷⁾ 따라서 노란색과 반대로 일률적으로 청색을 칠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을 짙게, 그리고 중심을

36) *ibid.*, p. 210.

37) *ibid.*, p. 210.

상대적으로 열게 칠해야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 청색은 경계에서 응축되어 내부를 향해 흘러 들어가는 색이자, 내면으로 잠기는 색이다.

적색은 현존하고자 머무르는 색으로, 주변이나 중심으로 방사하고자 하는 황색과 청색과는 성질이 달라 일종의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적색은 오로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색으로, 완전히 하나의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채이다. 앞서 황색과 청색의 채색방법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빨강은 끝없이 머무른다. 방사하거나 응축하지 않으며, 외투를 만들지 않는다. 정지한 평면으로 어디까지고 머물러 있는 성질을 가진다. 다시 말해, 빨강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뿐, 결코 사라지려고 하지 않는다. 균질적으로 존재하면서 한정되기를 거부하고 균등하고 안정된 적색으로 남아있으려 한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황색과 청색의 조정자 역할이 가능하다. 안정된 빨강은 머물러 있지만 온전히 정지한 녹색과는 다르다. 녹색은 자신을 한정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경계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내 속에 잠기려 한다. 나의 내면에 몰두하여 나의 둘레에 껍질을 만들려 하고 있다. 나는 녹색에 외투를 입히듯이 그려야 한다.” 슈타이너가 녹색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녹색은 자기 자신에게 외피를 만들어 그 안에서 한정된 안정을 느끼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빨강이 가지는 안정은 정지 상태에 도달한 운동성의 안정으로, 한정되고자 하는 녹색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적색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점이 아닌 균등한 평면으로, 경계가 없는 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라일락색(살색)은 적색과 달리 온전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사라지려 하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⁸⁾ 이것이 적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정지하여 머무르고자 하기 때문에 방사하거나 응축되거나 외피를 만드려고 하지는 않는다.

상의 색과 광휘의 색은 그림자의 색과 빛나는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흑색

38) *ibid.*, p. 218.

과 백색, 녹색과 살색은 상의 성격을 가지며 무언가를 모상하는 색으로, 본질을 투영하는 그림자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청색과 황색, 적색은 빛나는 성격을 가지며, 그 속에서 무언가가 빛을 발한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것의 외부에 위치하는 색이다. 이때 빛나는 성질이 각자 달라서 황색은 바깥으로 빛이 나고, 청색은 안으로 빛나고, 적색은 내외가 균등하게 빛이 난다. 여기서 ‘빛남’이란 나의 내면에 적용하였을 때 황색은 ‘영적인 빛남’이다. 노란색은 나를 쾌활하게 하는 생명력을 가진다. 청색은 ‘혼의 빛남’이다. 나 자신을 내부로 집중하고 응축하게 함으로서 단단하게 해준다. 적색은 ‘생명의 빛남’이다. 황색과 청색의 균형을 잡고 공간을 균일하게 만듦으로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슈타이너가 물리학적 관점에서 나열하고 있는 색 스펙트럼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구성한 색 스펙트럼에서는 가장 하단의 흰색부터 녹색, 살색, 검정의 순서대로 상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광휘의 색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색들이 관계를 가지고 혼합될 때, 색채들은 물질적인 차원 이상의 스펙트럼을 가지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우선 가장 하단에 있는 흰색과 상단에 있는 검정색은 서로가 마주보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즉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운동하는 흑백색 위에서 적색이 빛날 때 살색이 형성되고, 정지한 흰색 위에서 황색과 청색이 교차하여 빛나면 방사(발산)과 응축의 경계색인 녹색이 형성된다. 이러한 색의 관계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우주의 현상과 대응하여 설명하고 있다. 안정되어 항상 위치가 고정된 황도 십이궁과, 우주 속에서 항상 위치가 변화하는 유성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지만, 색들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네 가지 상의 색은 항상 안정된 힘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광휘의 색들은 주변에서 움직여 다른 색들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곧 색채의 우주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색채의 세계이다.

빨간색을 오랜 시간 응시하다가 갑자기 흰 바탕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시각에는 녹색의 잔상이 남아 아른거린다. 흔히 보색의 대비로 인한 현상이라고 부르

는 것이다. 보색대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색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색의 보색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슈타이너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녹색이 생명의 영상이고, 빨강이 생명의 빛남이기 때문이다.³⁹⁾ 빨강이라는 생명의 빛남이 우리 내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때, 이를 투영하는 상의 색으로 녹색이 표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색채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기존의 색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빛남의 색채와 영상(그림자)의 색채, 그리고 그 색들 간의 상호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색채의 본질을 이해하고 색채 자체의 의지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색채에 대한 이해는 곧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의 내적 체험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흑백녹살의 색을 부여하는 것은 영적인 상을 부여하며, 황적청으로 어우러진 색을 부여하는 것은 곧 내적의 체험을 빛내어 출현시키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물의 표면에 나타난 외적인 색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문제시한다. 그러나 색채의 유동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색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색들의 관계를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색채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예시로, 슈타이너는 노란색과 황금색을 들고 있다. 노란색이 가지는 고유한 발산의 성질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면, 노란색을 무겁게 쓰면 된다. 즉, 황금색에 가깝게 두텁게 칠하면 된다. 일률적으로 무겁게 칠하는 노랑은 주변으로 퍼져나가하고자 하는 고유의 성질을 죽이고 화면에 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평면에 고착하고자 금속화한 색채이자, 소재에 고착된 색이다. 반대로 살색, 피부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육체라는 물리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살색을 바라볼 때에는 살색의 내면에 존재하는 혼의 운동성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9) *ibid.*, p. 211.

2) 관념적 해석

아무리 뛰어난 감수성과 풍부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근대과학의 사고에 길들여버리면, 색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려는 충동을 올바르게 살려 내기가 힘들다. 뉴 에이지 사이언스의 뛰어난 저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로렌스 블레어는 그의 저술 《Rhythms of the Vision》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채는 ‘색이 부착된’ 물체가 흡수하기를 거부하여 튀어나온 진동하는 빛의 파장에 지나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는 모든 빛을 흡수하고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다. 거기에 반해 하얀 고양이는 모든 광선을 거부하고 전부를 반사해 버린다. 파란 나비는 우리가 청색으로 인식하는 빛을 제외하고 모든 빛을 흡수해 버린다. 완전한 진공 속에서는 열도 빛도 색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물체가 없는 곳에서는 빛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색채 유물론에 대해 슈타이너가 본서에서 전개하는 영학적 논리는 오히려 물질이야말로 색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는 색채령 주도론, 즉 물체 종속론의 관점이다. 과학 쪽에서 보면 생소하고 이질적인 이 색채령 주도론은 영적 실체에서 물질이 생성된다는 영학상의 기본 문제를 간략하게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슈타이너의 《신지학》, 《아카샤 연대기》, 《신비학 개론》 등에 상세히 논하였다. 슈타이너는 색채를 빛의 반사로 취급하는 뉴턴 이래의 색채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물리학자들도 색채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색채론을 광학의 한 분야로 생각하고, 물체에 있어서의 색채의 본질에 대하여 근대물리학에 잘 들어맞는 해석을 내렸다. ‘왜 이 물체는 빨간색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물리학에 걸맞은 해설을 하고 있다. 어떤 물체가 빨간 것은 그 물체가 다른 모든 색을 흡수하고 빨강만을 반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대물리학다운 대답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거의 다음과 같은 의미다. ‘왜 이 사람은 바보일까? 그건 그 사람이 모든 현명함을 흡수해버리고 바보스러움만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색채 원근법에서 멀고 가까움은 원근법이나 단축법과는 달라서 물질 공간 내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평면상에 머물면서, 그 평면성에 의식을 집중하여 그 속에 몰입함으로써 그 평면 속에 3차원 공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 색채 원근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멀고 가깝다는 것은 물질계와 영계 간의 거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여기에 비의를 여는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4차원 세계란 영계에 다름 아니다. 그 4차원은 물질적인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 예로부터 과학에 있어서나 존재론에 있어서 수수께끼로 여겨 온 “시간”이라는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개념은 천체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생성되고 흘러가는 모든 물질의 “존재형식”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시간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시간의 분열이 존재하는 한, 존재세계의 4차원으로서의 시간도 물질세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객관적인 시간으로밖에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시간”의 내적이며 영적인 측면을 4차원으로 생각하였고, 그 시간을 통하여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로 이행하는 것을 비의 입문이라 하였다.

제2절 발도르프 유치원과 과정중심 교육

1. 발도르프 학교와 유치원

1) 발도르프 학교의 원리와 교육단계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4월 루돌프 슈타이너가 독일 슈트트가르트(Stuttgart)의 발도르프 아스토리아(Waldorf-Astoria) 담배공장에서 했던 강연

에 비롯되었다. 그의 강연은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12년간 초등 교육과 상급 교육을 포함하는 통합 학교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감명을 받은 노동자들이 학교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공장주였던 에밀 몰트(Emil Molt)의 지원으로 공장 내 노동자와 일반인의 자녀를 위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인 자유-발도르프 학교(Freie Waldorfschule)이다. 학교와 교육의 명칭인 발도르프는 담배공장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학교 운영을 위해 강연, 토론, 수업 참관, 대화 등의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통해 교사를 직접 양성하였다. 강연은 주로 일반 인간론, 기질론, 교수계획, 교수 방법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발도르프 학교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1922년에는 함부르크, 에센, 1926년에는 하노버와 바젤, 1928년에는 베를린에도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지는 등 지속적으로 증축되었다. 학교간의 연맹을 결성하여 공동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나치즘 시대였던 1938~1941년에는 일부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와 영국 등 여러 나라에도 발도르프 교육이 퍼지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스위스에서 개최한 세계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바람직한 교육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지원 및 연구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발도르프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의 국가에 713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도르프 유치원 역시 1,200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론에 기초하고 있으나, 각각의 국가와 지역적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예술

발도르프 유치원은 엘리자베스 그린네스가 슈타이너의 영향을 받아 최초로 설립 및 운영한 것이 시작이다. 발도르프 유치원은 ‘교육프로그램’ 혹은 ‘하루 일과표’와 같은 틀에 박힌 교육 형식을 거부하고 유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창의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나이와 성장단계에 맞는 전인적인 인간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슈타이너의 발달론에서 유아기 단계는 외부 환경에 처음 노출되어 받아들이는 활동과 모방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점을 바탕으로 발도르프 유치원은 교육원리를 ‘모방’으로 두고 있다. 부모가 일단 출산이라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육신을 만들어 선사하였다면, 그 후에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화하고 인간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이라는 여건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발달 단계를 겪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유아가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사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모방과 모범을 중요시하였다.

영·유아기의 아동이 ‘모방하는 존재’라는 것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슈타이너는 아동의 언어 습득이 단순히 주변 환경의 언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에 소리가 새겨지면서 영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와 달리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확한 발음까지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외에도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에서 만 5세 기준 아동의 발달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발달했던 신체 성장은 5세에서 이전보다 다소 둔화되나,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꾸준한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 식사 시간 외에 간식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체 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다. 소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정교함을 요구하는 자르기, 그리기, 붙이기, 글쓰기 등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다. 또한, 만지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이므로 점토를 활용한 놀이도 추천된다.

둘째, 언어의 습득과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다. 다양한 환경에 접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의사소통,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하기, 전화하기, 식사 주문과 같

은 새로운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보다 복잡하고 완전한 문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며, 수천 개의 단어와 어휘력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언어의 발달은 아동이 자기 자신에서 주변 환경으로 흥미가 확장 및 유지되게 하며, 사회화에 도움을 준다. 구두 언어의 발달은 아동의 정서적 표현의 수단이 된다. 아동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 가족과 어린이집, 이웃과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셋째,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아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선생님과 또래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 우정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장난감을 나누고 교대하는 것과 같은 협동과 집단 놀이를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것이 좋다. 정교한 집단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가와 타인과의 비교 등에 접하게 되면서 정서적인 갈등을 겪기 쉬워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넷째, 인지, 지능, 언어 영역에서의 습득이 빠르다. 즉, 인지적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다.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시간, 공간, 나이, 도덕적 개념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변 환경으로의 흥미가 확장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실제로부터 실체가 아닌 것을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못한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5세 기준 유아는 이전보다 행동과 언어 구사에 있어서 더욱 성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며, 행동과 감정에서 통제도 가능해진다. 자신감과 신뢰감, 책임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모방과 질서, 리듬과 같은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있다.⁴⁰⁾ 교육원리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김정임, 『발도르프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서울: 학지사, 2006).

가. 모방과 모델의 원리

인간은 출생부터 모방을 통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모방 능력은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유아기의 아동은 신체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를 모방하는 것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이에 맞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아기의 아동은 그 자체가 완전한 감각기관인 동시에 완전한 의지의 존재라는 것이다. 즉, 아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각을 통해 수용하고 모방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자기 의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아가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환경에 대해서 이를 모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른다. 이렇듯 7세 이전의 유아가 하는 모방이라는 행동은 감각을 통한 수용과 의지에 의한 모사라는 이중적인 과정을 지닌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모방이 의지적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의 반응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단 모델의 행동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유아의 내면에서 수용 및 모사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 모방 능력은 유아의 자유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모방 능력은 자기 주변의 인물들 속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델과 주변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나. 리듬의 원리

인간을 포함하여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주 전체는 어떤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움직인다. 꽃이 피고 지는 것과 동물의 수면과 활동, 행성의 공전과 자전과 같이 우주가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삶 또한 리드미컬(rhythmical)하게 형성되며 무의식적으로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리듬은 한번 형성되면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습성이 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이 좋은 나쁜 형성되면,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서 일상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신체에 기록된 습관은 때때로 인지와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무의식적으로 ‘습관대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 시간이 되거나 아침 식사가 끝날 때마다 과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꼭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 때 꼭 술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듯 인간은 습관과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리듬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과 내면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면과 기상이나 식사와 소화와 같이 대조적인 요소는 적절한 리듬을 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인은 좋은 나쁜든 나뉠대로의 리듬이 형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리듬이 변화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리듬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와 달리 아동은 여태까지 태어나 단순히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욕구에 충족하고자 하였을 뿐, 어떤 리듬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하다. 아동은 스스로 다양한 인간의 리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리듬을 모방하여 따른다. 따라서 유아가 바람직한 리듬을 형성하여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리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유아가 이상적인 리듬에 적응하여 고유의 리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때, 유아의 주변 환경은 자주 급변해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아는 이를 리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란과 불신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유아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험을 얻어 축적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불변의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질서의 원리

다음으로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서의 원리이다. 앞서 리듬의 원리와 같이 유아는 마치 백지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태어나 외부 환경과 인간의 사회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익히게 된다. 주위 환경에 있는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친숙해지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유아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올바른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교육적 의미의 질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간에서의 질서

유아가 태어나 외부 환경에 접하는 것은 곧 물리적 공간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데, 공간에서의 질서란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서의 임의적 질서를 의미한다. 공간에서의 질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물건과 사물이 제자리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아는 스스로 공간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우리는 공간적 질서가 어떤 것이 인지하도록 돕고, 정리된 공간을 제공하며, 자신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정리된 공간은 유아에게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공간적 질서를 갖춘 환경은 유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외피라고 할 수 있겠다.

② 시간에서의 질서

시간에서의 질서는 리듬의 원리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시간을 질서 있게 계획하여 운용하는 것은 곧 규칙적인 리듬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규칙적인 일과는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해준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호흡과 마찬가지로이다.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사람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듯, 인간의 일과 역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순간(들숨)과 자신의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는 순간(날숨)이 조화로워야 한

다. 시간에 대한 질서는 하루 일과를 넘어서 일주일, 한 달, 1년을 주기로 규칙적인 계획하에 운영될 때 충족된다. 앞서 언급했듯 유아는 스스로 리듬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질서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환경을 통해 시간에 대한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유아에게 필요한 두 번째 외피가 된다.

③ 내적인 질서

유아에게 외부 환경에 대한 신뢰는 유아 내면의 세계, 즉 내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 감정적인 느낌과 내면의 세계를 형성하려는 동기 속에서 타인과의 평온한 만남을 통해 유아는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성인이 기쁨과 존경, 경외의 대상으로서 모델이 되어야 하며, 유아에게 열망과 진지함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환경은 유아가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곧 내적인 질서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유아가 적절한 외부 환경을 제공받았을 때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을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그림 그리기, 모형 만들기, 오이리트미(eurythmy)⁴¹⁾, 바느질하기, 악기 연주하기, 재봉이나 목공, 도자기 활동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두뇌의 지적 훈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는 과정을 통해 전 감각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다감각적 활동은 아동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자극되면서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은 외부 환경에서 제공된 교육적 요소를 모방과 받아들이기를 통해 습득하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

41) 오이리트미(eurythmy)는 모든 표현 도구 중 가장 유연한 도구, 즉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인간 신체구조의 제한된 부위만 사용하는 마임(mime)이나 무용(dance)과는 다르게 오이리트미는 인간 신체구조를 전체로써 온전하게 모두 사용해야만 한다. 전체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과 신비를 인간이라는 소우주(microcosm)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오이리트미를 통하여 표현적이며 의미 있는 순간에 이러한 법칙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한, 유아의 개별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발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이 구성된다.

그 외에도 발도르프 유치원은 일반적인 유치원과 달리 학급을 연령 혼합 집단으로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이가 다른 아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정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영재에게 교육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소 취약한 학생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효과적인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한 어린이에게 같은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담임을 맡는 담임 교사 제도를 택하고 있다.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수가 언제나 먼저 본보기로서 어린이들 앞에서 지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따라한다’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효과적이다. 발도르프 유치원은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종일제 형태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이 가정에서의 일상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유아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 관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교육이란 아동의 육체와 영혼을 자극하여 깨우며 생활 속에서 적절한 리듬을 형성하여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노력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내적(영혼의) 질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슈타이너는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강조하였다. 육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예술을 통한 내적 감수성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슈타이너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예술의 3가지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신성의 원리

슈타이너는 아이들을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정신이 함께하는 우주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을 인지하고 사고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내적인 면, 즉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성장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고를 ‘질서정연한 뜨개질’로 표현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삶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육체와 영혼, 정신이 모두 성장하는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교육 형태로는 이러한 성장을 자극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현대의 교육이 육체의 발달, 혹은 지적 발달에 한정되어 있어 영혼과 정신의 세계로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체의 진정한 모습은 외피와 독립된 것으로 그 물체의 정신적인 근원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은 외적인 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접근하여 그들이 내면에 잠재된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가꿀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교육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술활동을 접목한 교육 행위는 아이들이 자신의 내적 세계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육체적인 면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예술교육론은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다. 아이들은 예술적 학습을 통해 인식의 확장과 정신적인 삶을 경험하며, 내면의 세계를 성장시킴으로써 올바른 자아의 형성과 사회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전인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과 참된 삶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슈타이너는 교육활동에 예술적인 행위를 접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교육이 곧 예술 그 자체’라고 했던 주장에서도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② 전인적 인간 형성의 원리

앞서 언급하였듯 인지학을 토대로 하는 슈타이너의 사상은 육체적인 영역, 즉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합일을 통한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육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용한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추측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수용과 인식만으로는 영혼과 정신적인 영역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감각은 사물의 모습과 외적인 현상을 인지하게 해주지만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내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영혼과 이를 드러나게 하는 정신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가진 물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거나 지적인 사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은 물질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육체를 통해서 영혼과 정신의 본질에 접근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세계에 들어선 이해, 즉 인지의 확장과 조화로운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행위는 육체와 영혼, 정신의 세 가지 세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의 역할이 요구된다.

아이들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육체를 통한 정신과 영혼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의 교육은 지나친 주지주의로 아이들을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의 교육이 분리되어 있어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조화롭게 자극받음으로써 전인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적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내면의 통합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학습 내용이 아동의 삶을 통합시키며, 지적인 교육, 즉 문자를 읽고 쓰는 것에 한정된 기존 교육과정과는 달리 예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의 접근 방법이 포함됨으로써 사고와 의지, 감정이 통합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슈타이너는 육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위한 통합적 형태의 교육이 슈타이너 교수법의 핵심으로 보았다.

③ 창조적 감성의 원리

앞서 감각을 통한 수용과 의지에 의한 모사라는 이중적인 과정을 가진 존재로서 아동을 설명하였듯이 슈타이너는 같은 부모와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신만의 개성과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잠재성과 개성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는 교육이라는 행위를 통해 내재한 능력을 발굴하고자 예술적 창조성과 내적 감성을 기초로 하는 예술 교육을 강조하였다. 슈타이너는 교육에 대한 예술적인 접근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신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과도 연결된다. 아이들은 자연이라는 교육적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술 행위는 아이들의 육체와 영혼, 정신의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감정을 올바르게 승화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그림 그리기와 악기 연주와 같은 음악 활동은 자신도 모르던 내면의 세계를 인지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스스로 예술적인 활동을 지속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통찰과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아이들은 의지와 감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식의 씨앗을 하나둘씩 감성의 토양 아래 품어두었다가, 사춘기가 지나면 ‘사고’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슈타이너의 주요 교육과정 중 하나인 습식수채화와 에포크, 포르멘, 오이리트미는 바로 아이들의 창조적 감성을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이리트미(Eurythmie)는 육체라는 악기를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음악과 다양한 교과목을 접목하여 신체보다는 의식 자체에 집

중한 학습 방법이다. 오이리트미는 아이들이 예술적 경험을 통해 언어능력과 음악 감상 능력을 심화시키며, 육체와 정신의 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슈타이너가 강조한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이렇듯 내면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전인적 인간이자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살펴본 슈타이너의 교육 예술의 3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은 그림 그리기, 모형 만들기, 오이리트미(eurythmy)⁴²⁾, 바느질하기, 악기 연주하기, 재봉이나 목공, 도자기 활동 등과 같은 예술활동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두뇌의 지적 훈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는 과정을 통해 전 감각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다-감각적 활동은 아동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자극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은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교육적 요소를 모방과 받아들이기를 통해 습득하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한,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활동은 유아의 개별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발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2.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 가치

발도르프 유치원은 대부분 학부모연합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발도르프 학교보다는 발도르프 교육철학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학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학부모의 기여도가 매우 큰 편이다.

발도르프 유치원은 일반적인 유치원과 달리 학급을 연령혼합집단으로 구성한

42) 오이리트미(eurythmy)는 모든 표현 도구 중 가장 유연한 도구, 즉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인간 신체구조의 제한된 부위만 사용하는 마임(mime)이나 무용(dance)과는 다르게 오이리트미는 인간 신체구조를 전체로써 온전하게 모두 사용해야만 한다. 전체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과 신비를 인간이라는 소우주(microcosm)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오이리트미를 통하여 표현적이며 의미 있는 순간에 이러한 법칙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다는 특징이 있다. 연령이 다른 아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정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영재에게 교육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소 취약한 학생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고유의 기질을 가지며 특성과 발달속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각 적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과적인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한 어린이에게 같은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담임을 맡는 담임교사 제도를 택하고 있다.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장난감이나 교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천연 재질의 놀이기구 활용 교육을 선호한다.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수가 언제나 먼저 본보기로서 어린이들 앞에 서서 지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따라한다’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효과적이다. 아동들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발도르프 유치원은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종일제 형태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이 가정에서의 일상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유아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 관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제3장 발도르프 습식수채화를 통한 색채교육 프로그램

제1절 발도르프 유치원의 색채교육

1. 과정 중심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

슈타이너는 ‘교육이 곧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예술(Erziehungskunst)을 주장하였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교육은 이렇듯 교육예술론을 바탕으로 예술활동을 접목한 교육 방법이 실시되고 있으며, 육체와 영혼, 정신(신체, 감정, 사고라고도 말한다)의 세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형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교육 대상이 영유아기의 아동인 만큼 읽기와 쓰기, 산수와 같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 방법보다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감성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이 중점적이다. 예를 들어 연극, 합창, 수공예 활동, 축제와 같은 예술활동이 있다. 이러한 다-감각적인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와 양식을 자연스럽게 배울 뿐만 아니라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위한 인지의 확장과 자아 성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통합적인 형태의 교육은 발도르프 유치원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교육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한다. 또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나이와 성적에 따른 우열을 가리지 않으며, 인지적·도덕적·실용적 재능의 발달을 중요하게 보고 예술활동 중심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예술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 교육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예술활동을 통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스스로 풍부한 예술성을 가지고 이를 자각하며,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슈타이너는 아동기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영혼의 예술가’라고 지칭하

기도 하였다.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슈타이너는 교육 예술에 있어서 교사가 충분한 열정(enthusiasm)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사가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지학을 기초로 한 인간과 아동 본성에 대한 인식과 세계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사는 예술가로서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사는 영혼의 예술가로서 예술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전의 주기집중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자율성과 유연성, 창의성을 교육과정의 주된 지침으로 삼고 의지와 감정, 사고의 통합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을 자유로운 학습 방법으로 가르친다. 한편,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사는 전반적인 학교의 운영과 경영, 즉 행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발도르프 유치원에는 교장이 따로 없고 모든 교사가 원칙상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유치원 내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은 행정-조직협의회, 교육 협의회, 학교 운영협의회로 구성된 교사회에서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교사회의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모임이 실시된다. 교사회의는 모든 교사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갈등상태를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봉급 규정과 급여 결정방식 또한 교사회의를 통해 교사진이 이사회나 학교단체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때, 결정된 봉급 규정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발도르프 교사의 기본 급여가 일반적인 공립학교의 급여보다 적다는 점이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교사에게 제한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 때문이다. 첫째는 안정된 신분과 높은 봉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교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둘째는 교사란 일종의 성직으로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는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예술가이자 창의력을 가지는 열정적인 교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의 기질과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심리학적, 생리학적 인간학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수업으로 다루는 주제를 인간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오이리트미, 조각과 모형 제작하기 등과 같은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 경험을 충분히 익히고 배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자극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발도르프 유치원은 교사가 자유롭게 학습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교사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교육 과정은 유치원이 운영되는 지점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2~3년의 전일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3년 과정을 기준으로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1년 과정에서는 인간의 발달단계과 명상법, 윤희와 카르마, 인지학과 같은 교육과 함께 다양한 예술활동을 진행한다. 2년째 과정에서는 아동의 단계별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3년째 과정에서는 발도르프 교육과정(유치원과정 /1~8학년 과정) 중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졸업논문으로 작성 및 제출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외에도 자기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주말이나 방학 등에 진행되는 워크숍도 있다. 주로 명상법이나 오이리트미, 인형 제작과 같은 다양한 예술활동과 수공활동으로 구성된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교육 과정에는 실습과정이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교육은 철저하게 교육현장과 연계되어 진행되는데, 교사들은 아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관찰한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연습을 한다. 우리나라 기준 현장 실습과정이 4주간 진행된다면, 발도르프 유치원 교

사교육 과정에서의 실습과정은 약 17~20주간 진행된다. 이렇듯 비중 있는 기간동안 교육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수업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로의 양성이 가능하게 된다.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자체가 교사의 자기개발 및 자기 교육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학생이라는 타인을 교육하기 앞서 교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확장과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사 자신의 지혜와 영감, 인격과 자아의 발달, 그리고 인지 능력의 확장은 발도르프 유치원 교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에 있어서 교사란 학생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교감을 통해 사고와 감정, 의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계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예술활동이라고 슈타이너는 생각하였다. 특히, 슈타이너는 예술 분야 중에서도 조소, 음악, 언어 예술의 세 가지 분야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 세 영역은 오이리트미를 통해 강화된다.

2.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 과정

1) 습식수채화

수채화(water-color painting)는 아라비아 풀과 혼합된 안료와 같이 물에 용해되는 매질로 그린 회화를 가리키며, 서양 회화의 양식들 중 유화와 대응되는 용어이다. 과거 수채화는 유화와 비교하여 유화 과정을 위한 밑그림이나 미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소묘와 더불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중요 회화 양식이 되었다.

최초의 수채화가라 할 수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는 분위기의

미묘한 누앙스나 색채의 풍부한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채화가 유화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또한 존 싱어 서전트(John Singer Sargent)는 유화보다 수채화를 사용했을 때 더욱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⁴³⁾ 이는 수채화가 다른 회화 재료와 구별되는 특징, 즉 색의 번짐과 자유로운 붓놀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생생함과 신선함, 담백함 그리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수채화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을 때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는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다. 투명수채화는 맑고 투명한 효과가 특징으로 얇게 채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소묘 시 가능한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아야 종이가 손상되지 않아 색감의 표현이 잘 되며, 신선함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겹쳐 칠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흰 물감과 섞으면 투명 수채화 특유의 깨끗한 발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흰색의 효과는 용지의 흰색 바탕을 활용하며, 명도의 조절은 혼합하는 물의 양에 의해 조절한다.⁴⁴⁾

수채화 기법에 있어서 건식 기법(wet on dry)이란, 전통적인 수채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 건식 수채화에서 붓질한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 선명한 색감을 나타낸다. 먼저 칠한 색상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른 색상으로 또는 다른 명도로 겹쳐 칠하는 것으로 밝은 부분부터 조금씩 덧칠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어두운 색을 덧칠한다. 이러한 건식 기법은 색상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작업이 능숙하지 못하면 의도하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습식(wet in wet 또는 wet on wet) 기법은 먼저 칠한 색상이 건조되기 전에 덧칠하거나 배열하여 색상과 색상이 번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종이 자체에 물을 적셔 번지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칠해진 색상 사이에 물을

43) 임영진, “습식 수채화를 통한 서정적 추상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7).

44) 이슬비, “색채 관찰을 통한 수채표현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7.

뿌리거나 적실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체의 윤곽선과 물체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져서 형태와 윤곽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효과를 가진다.

습식 기법에 있어서 종이의 젖은 정도는 작품의 성패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종이가 많이 젖을수록 물감도 많이 번지게 되고, 형태와 윤곽이 흐려지므로 물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습식 기법에 물기가 적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지의 표면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각도에서 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빛의 반사를 관찰하여, 물기가 종이에 완전히 흡수되었지만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⁴⁵⁾ 습식 기법은 그라데이션(gradation)과 같은 자연스러운 색의 혼합, 흘러내림이나 번짐 등의 우연이 주는 효과를 주는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수채화의 건식 기법과 습식 기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1> 건식수채화와 습식수채화의 기법 비교

	건식수채화	습식수채화
선 긋기	건식수채화에서는 선은 또렷하게 그 형태가 유지된다.	습식수채화에서 선은 번짐에 의해 면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된다.
점 찍기	건식수채화에서는 점은 본래의 색상과 형태가 유지된다.	습식수채화에서는 점은 번짐으로 인해 형태가 확장되며, 색도 처음 찍은 위치는 진하지만 점점 외각으로 갈수록 연해진다.
물감 떨어뜨려 흘리기	건식수채화에서는 물감이 떨어진 부분과 흐르게 한 부분이 그대로 마르면서 흔적이 모두 드러난다.	습식수채화에서는 번짐으로 인해 흔적이 모호해진다.

45) 임영진, “습식 수채화를 통한 서정적 추상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7).



(a)

(b)

[그림 1] 습식수채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수채화는 마른 종이 위에 그리는 건식수채화를 가리키며, 이와는 달리 습식수채화는 젖은 종이 위에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이다. 발도르프 교육의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습식수채화는 발도르프 미술교육의 특징적인 활동이다.⁴⁶⁾ 수채화 특성상 물을 사용하는 만큼 건식수채화도 물감의 퍼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물에 젖은 도화지를 사용하는 습식수채화는 물감이 가지는 색의 퍼짐과 율동감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색채의 퍼짐은 색이 가지는 감정과 본질을 좀 더 느끼기 쉽고 창조적 조형능력이 작용하여 보다 자유롭게 활동 및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는 유아가 전신의 감각으로 색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한 슈타이너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인이 알고 있는 색채의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아동이 색채의 본질적인 느낌을 순수하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과를 빨간색이고 하늘은 파란색이며 이것은 이렇게 칠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변화하는 색과 형태를 아이가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진 성인의 사고가 아닌 유동적이며 자유로운 아이들의 인지와 사고능력을

46) 마그리트 위네만·프리츠 바이트만, *op. cit.*, p. 21.

발달시키기에 적합하다. 아이에게 습식수채화는 색과 형태에 대한 감각적인 체험 활동이며, 순수하게 색과 함께 하는 놀이이다.

습식수채화에 대한 학습 방법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삼원색인 노랑과 파랑, 빨강으로 색을 칠하게 한다. 이 세 가지 색이 퍼지고 섞이면서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보고, 얘기한다.⁴⁷⁾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색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색의 움직임은 충분히 경험하게 한 후에는 천천히 형태를 갖춘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투명한 성격으로 강렬하면서 찬락하게 빛나는 원색과 혼합색을 통하여 색이 사물에 고착된 색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무겁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선이 아닌 면으로 표현된 색깔들은 경계에 갇혀 있지 않으며 윤곽선이 없다. 아무 제약없이 이리저리 흐르고 제 뜻대로 섞이거나 하나가 된다. 색은 표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가오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습식수채화에 형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색채 대조는 긴장감과 농축, 경계를 가지면서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는 선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직 색 그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색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투명한 매체인 습식수채화는 영혼의 요소를 표현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움직이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인 아동들에게 습식수채화는 이상적인 매체이다. 아이들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 상상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맑음과 투명함, 광채를 모두 갖춘 습식수채화가 색이 주는 인상을 묘사하고 아동들의 상상력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기법 중 하나인 것이다.

습식수채화를 그릴 때 아이들은 색을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에 들게 표현하기 위하여 붓을 움직이는 것에 열심히 열중한다. 아이들

47) *ibid*, p. 50.

은 색이 번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색의 특성 속으로 강렬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듯 색이 번지는 것을 느끼고 색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색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감각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⁴⁸⁾

수채화 물감 외에 다른 회화 재료를 이용해도 되는냐는 것에 대해서는 웨니만과 바이트만⁴⁹⁾은 그들의 책에서 실제 습식수채화 수업에서 수채화 물감의 교육적 효과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 연극에 쓰일 무대 배경을 만들 때는 템페라나 유성 페인트, 포스터 물감처럼 불투명한 물감을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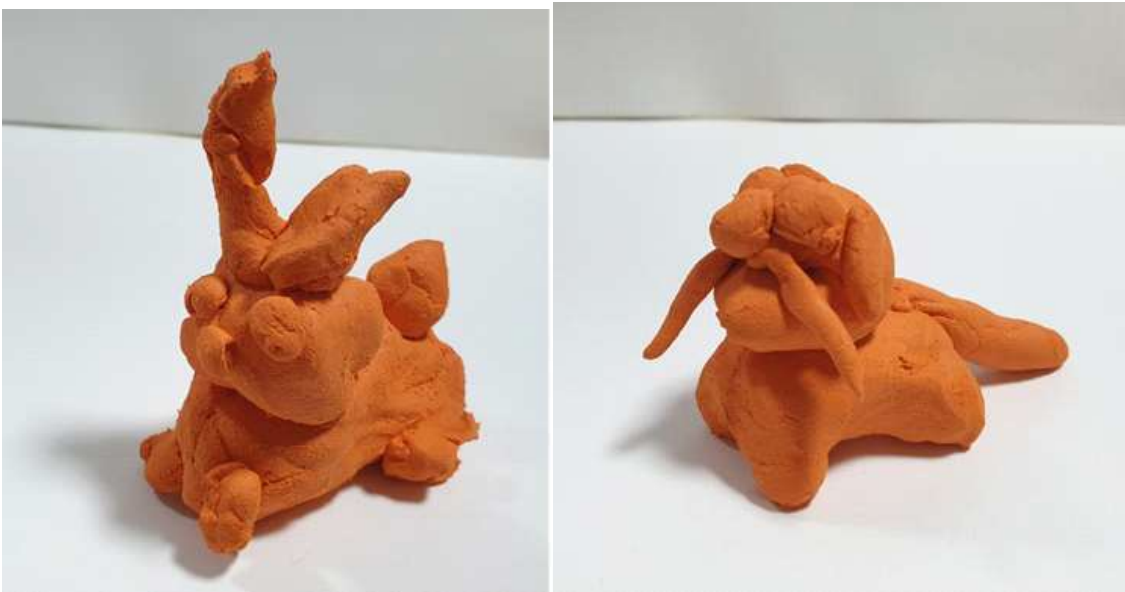
2) 점토 놀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흔히 활용되는 교육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면서 아이의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로써 촉감 놀이가 활용된다. 발도르프 유치원 역시 교육 과정에 촉감 놀이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밀랍을 주재료로 하는 점토 놀이가 있다. 밀랍은 벌집에서 가열압착법, 용제추출법 등을 사용하여 채취하는 동물성 고체랍으로 점착성이 있는 비결정성 물질이다. 밀랍 점토는 열에 반응하여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어 손으로 주무르면 부드럽게 형태가 변화한다. 또한, 강한 점착성을 가지고 있어 유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밀랍을 이용한 점토놀이는 어떤 정해진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밀랍점토를 만지면서 자극되는 감각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내적인 감정을 유아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점토 놀이에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고 유아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무르면서 내적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토 놀이는 밀랍뿐만 아니라 흙 점토, 밀가루 점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점토 놀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점토를 손

48) 마그리트 위네만·프리츠 바이트만, *op. cit.*, p. 23.

49) *ibid.*

으로 주무르고 만지는 활동은 유아의 손끝을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촉각을 포함한 오감을 자극하여 발달시키며, 손가락의 사용이 유연하고 정교해지는 등 소근육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말랑말랑한 점토의 촉감은 아이들이 거부감없이 편안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둘째, 어떠한 규칙과 제한이 없고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위험이 거의 없는 놀이이므로 유아의 특성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놀이이다.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며, 손에 힘을 주면서 유아 시기의 왕성한 신체 운동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말로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내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놀이이다. 유아가 스스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유아의 주의 집중력을 기르고 두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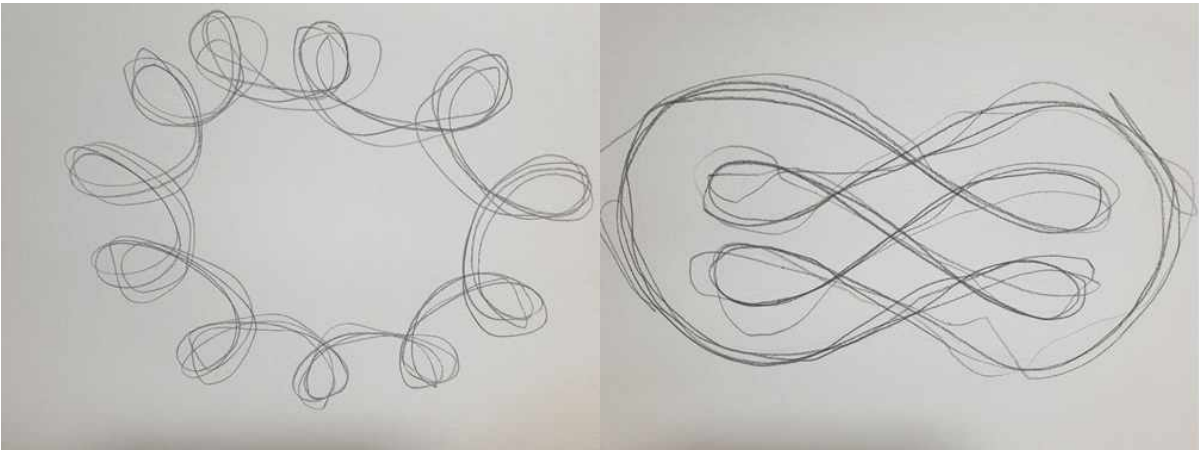
[그림 2] 점토놀이

3) 포르멘 선묘

포르멘(formen) 선묘는 독일어 Formenzeichen(꼴, 형태, 그리기)로부터 유래한 개념으로 영어로는 Form Drawing이라고도 한다. 포르멘 그 자체는 ‘형태’로 번역되나 눈에 보이는 대상의 가시적인 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포르멘 선묘는 ‘형태 그리기’라고 하여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그리기로 직선이나 굽은 선을 기본으로 하여 대칭적인, 혹은 반복적인 문양의 다양한 형태를 그리는 그리기 활동을 가리킨다. 곧게 뻗은 선이나 부드럽게 굴곡진 선이 모이면 자연이나 옛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문양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 유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요소에서 드러나는 리듬과 운동감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감각과 감정의 발달을 겪는다. 선이 모여서 그림으로 연결되는 포르멘 선묘라는 과정을 통해 유아는 시간과 공간감, 자신의 내면과 자아를 탐색하게 된다.

포르멘 선묘는 슈타이너가 자유 발도르프 학교를 창설한 이후, 오이리트미와 함께 시작했던 새로운 교육법 중 하나로 개발된 것이다. 소묘 학습을 통한 형태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포르멘 선묘는 직선과 곡선의 다양한 조합과 변형을 통해 형태 요소와 리듬감을 체험하고, 감정을 훈련하며, 대칭의 연습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교육적 치료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포르멘 선묘는 ‘포르멘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이 포르멘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김성숙, 2002). 다양한 선을 그려내면서 일정한 모양의 반복과 대칭을 구축하는 포르멘 학습은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포르멘 학습은 선이 만들어내는 형태에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감정의 결과로 사실적인 묘사의 그림은 배제한다. 이는 유아가 내면과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을 선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며, 내면의 힘을 실은 선이 움직임에 따라 아이의 몸도 마음도 그 움직임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형상화된 선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윤곽과 경계를 짓는 선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내면과 외부, 나아가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리듬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내면의 힘이 어떻게 건강하게 창조적으로 표출되는지 깨닫게 해준다.



[그림 3] 포르멘 선묘

슈타이너는 선은 움직임으로부터 형성되며, 운동의 움직임은 형태를 만들어 내며,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 미술 수업, 특히 포르멘 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이라고 보고 이를 중시하였다. 그는 유아에게 필요한 미술교육이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유아가 태어나서 자라며 경험하는 직선과 곡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선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고, 그려내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아이들이 선을 통해 내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 체험을 가능한 풍부하게 하도록 돕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Werdende)’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Gestaltende)’의 흔적을 쫓게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가 그려내는 선과 형태에 특정한 지시를 하기보다는, 교사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4) 그림 그리기

마지막으로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활용되는 특징적인 활동으로 그림 그리기가 있다. 이 활동에서 일반적인 유치원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흔히 사용되는 막대 형태의 크레파스가 아닌 사각 형태의 블록 크레파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각블록 형태의 크레파스는 일반적인 막대 형태의 크레파스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유아들이 좀 더 쉽게 손에 잡고 그리기 적합하다. 또한, 세부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선’ 중심의 그림보다는 자유롭게 형태를 표현하는 ‘면’ 중심의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각블록 크레파스가 추천된다. 면 중심의 그림은 크레파스가 가지는 색의 느낌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크레파스의 형태가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활동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발도르프 교육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놀이환경을 형성하여 그 틀 안에서 형식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체험과 내·외면의 발달일 것이다.

제2절 습식수채화를 이용한 과정중심 수업 프로그램

앞서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유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유롭게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술 활동으로서 습식 수채화를 예시로 들었다. 본 절에서는 습식 수채화의 과정과 미술 교육적 의미를 간

단하게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과정중심 습식수채화의 특성과 미술교육적 의미

습식 수채화는 물에 젖은 도화지를 바탕으로 천연물감 혹은 수채화 물감, 넓은 붓과 손 등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도화지를 먼저 물에 5분 정도 담가둔 후에 천이나 스펀지 등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림물감은 20ml ~ 30ml 정도를 물에 풀어 선명하면서도 투명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아이가 물에 젖은 붓으로 물감을 찍어 도화지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 된다. 교사는 어떤 형태를 그리도록 지시하기보다는 삼원색인 노랑, 파랑, 빨강의 색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물감이 번지면서 색과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좋다. 습식 수채화는 괴테의 색채론에 근거하여 처음 그림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색의 성질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그림 놀이이다. 따라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색의 변화와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리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색을 사용하여 모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유아들은 색깔 놀이와 번지기 놀이를 통해 색과 일치하는 내적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느낌으로 이해하게 된다. 교사는 색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유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슈타이너는 습식 수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색채의 경험은 젖은 종이에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색깔들은 물속에서 색채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젖은 종이의 표면은 색이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갖게 해준다. 흔들리고, 아른아른 빛나고, 흐르는 색채의 본성은 부드럽고 완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을 때 종종 그리고자 하는 분명한 대상이나 색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습식 수채화는 이렇게 떠올린 분명한 색과 형태의 이미지의 경계선을 쉽게 무너뜨리고 섞이게 하는데, 이처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하지 않고 표면의 색이 서로 부드럽게 흘러 섞이며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미경계의 영역은 아이들에게 환상(fantasy)의 힘을 가지게 한다. 습식 수채화가 만들어내는 ‘꿈꾸는 듯한 분위기의 색감’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게 한다. 물질문명에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아이들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며 지식과 정보 주의에만 연해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있어 습식 수채화가 제공하는 색의 경험은 자신과 타인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아이는 색과 색이 만나 섞이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즉,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미술 학습은 형태와 색을 배우고 그림 그리기라는 미학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외면과 타인과의 조화, 균형을 깨우치기 위한 훈련으로써 인간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다. 또한, 습식 수채화는 일반적인 수채화는 다르게 물에 담가 두었던 젖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활동이다. 색이 섞이는 원리를 경험하기 위해 작업의 순서에 따르거나 기다리는 과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의 미세한 조절과 인내심을 기르는 등 부가적인 기능을 갖는다.

2. 과정 중심 습식수채화 지도안 제시

슈타이너의 예술교육에서는 유아가 전신의 감각으로 색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슈타이너는 수채물감이 어린이 혼의 요소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가장 이상적인 조형 수단은 젖은 도화지에 수채

물감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라고 보았다.⁵⁰⁾ 습식 수채화(wet-on-wet watercolor)는 젖은 도화지에 형태가 아닌 물감을 이용한 작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내적 표현력을 증가시키며,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되어 가도록 도와준다.⁵¹⁾ 본 연구는 슈타이너가 강조했던 색채의 체험을 교육 목적으로 두고 6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과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흔히 진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반을 구성할 때 6세에서 7세의 아이들을 혼합연령으로 구성하며, 모든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7세 유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과정으로 그림을 활용한 문자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에 추가로 포함한다.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을 바탕으로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생활 리듬은 어떤 특정한 시간표에 따라 구성하지 않고 아이들이 시간과 환경 리듬을 충분히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계절과 절기 중심의 리듬으로 구성한다. 이 리듬은 강제적이기보다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은 기본 삼원색인 빨강과 노랑, 파랑을 이용하여 관찰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색과 색이 어떻게 혼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학습효과와 유의점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원명

프로그램의 단원명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대단원은 표현이고, 중단원으로는 삼원색과 혼합이며, 소단원은 색이 만드는 세상이다. 대상은 6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이다.

50) 김경민, “R.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예술교육론에 기초한 수업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2).

51) 김소라, “슈타이너의 습식 수채화를 활용한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육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흥익대학교, 2007).

<표 2> 단원 설명

I. 단원명	
대단원	표현
중단원	삼원색과 혼합
소단원	색이 만드는 세상
대상	6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

2) 단원의 학습 효과

슈타이너는 예술이 인간 내면의 본성에 깊이 작용한다고 보고 예술을 활용한 교육이 인간 내면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예술교육은 아이의 내면에 잠재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내면의 욕구를 해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예술이라는 방법으로 승화할 수 있으므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돕는다. 특히, 습식 수채화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색을 통해서 표현하고, 색의 움직임에 따라 감정 또한 움직인다는 내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색과 색의 혼합은 분리되어 있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조화롭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작은 움직임이다. 이러한 점에서 습식 수채화를 이용한 프로그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학습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의 삼원색을 배운다. 색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색을 배우며, 그 색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색이 혼합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세 가지 삼원색이 만나면서 혼합되고 새로운 색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색과 색의 혼합을 스스로 인지·이해할 수 있다. 셋째, 색을 통한 표현력을 배운다.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직접 도화지에 색과 모양을 통해 그리는 과정에서 내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 습식 수

채화만의 독특한 색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감성을 기를 수 있다. 정해진 모양과 색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습식 수채화만의 특성을 통해 물감이 가지는 색채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 3> 학습효과

II. 학습 효과
첫째, 색의 삼원색을 배운다.
둘째,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셋째, 색과 여러가지 표현력에 대해서 배운다.
넷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다섯째, 물감을 통한 색채를 감성적으로 느낀다.

3) 지도상의 유의점

본 과정 중심의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한다거나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내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시하는 생활 리듬과 질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좋다.

첫째, 습식 수채화에 필요한 물에 젖은 도화지와 물감, 붓 등의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습식 수채화의 특성과 교육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물감을 가지고 특정한 형태를 표현하기보다는 색과 색이 번지고 혼합되게 그리도록 지도함으로써, 색채를 감성적으로 충분히 느끼게끔 보조한다.

셋째, 삼원색과 색의 혼합 원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습식 수채화 그리기가 마치면, 아이 스스로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과정 중심의 수업 지도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습식 수채화 수업은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유아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색채를 잘 표현하는지에 대해 성적을 매기거나 일등을 가려내는 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아이가 습식 수채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아가 무엇을 그리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그림을 그리겠노라 선택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질문하여 유아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로서,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없는 수업이 아닌 즐겁게 하는 놀이로의 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습식 수채화는 유아에게 색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발달시키고, 풍부하고 창의적인 색채의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색채교육이다. 또한, 색채는 비물리적 요소로 자율적이고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자극하므로 유아가 자신의 내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취감을 통해 미술적 감성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아기는 지적인 면에서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사고를 하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상징 놀이와 상상을 통한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교육은 상상력 신장이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최숙연, 2009).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주의 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들의 몸과 감각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아의 상상력이 잘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습식 수채화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라고 본다.

과정 중심의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의 지도 방향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타이너의 색채론을 기반으로 아이가 오감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색채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고 내적 경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슈타이너는 색채교육이 유아의 감각을 개방 및 확대하며, 외부 세계의 감각을 통해 내적 세계를 자각하고 의식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명이나 자료에 의한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경험이 아닌 습식 수채화라는 체험학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도르프의 교육원리인 질서의 원리, 모방의 원리, 리듬의 원리 또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앞서 강조하였던 풍부한 색채 경험뿐만 아니라, 습식 수채화라는 수업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이가 발도르프 교육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리듬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신체와 영과 혼이 조화롭게 발달하여 전인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과정 중심의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에는 오감의 발달을 위해 다양한 재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지정된 물감과 도화지만을 사용하는 제한적인 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료를 포함하여 유아가 직접 습식 수채화에 활용할 재료를 관찰, 탐색,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다양한 재료를 토대로 아이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의 색감과 계절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자연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넷째, 교사는 결과물을 중시하지 않는 과정 중심의 색채교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의 미술 활동 결과물을 벽에 붙이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가 자신이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대화할 때 결과물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특히 자신의 평가에 민감하며, 자기 그림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오류를 인식하거나 미술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한 표현력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스스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윤선영, 2006). 아이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사 또한 예술가의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황에 맞는 창조적인 수업의 구성은 유아가 자신의 내적 감정을 인식 및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5) 과정중심의 습식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제시

가. 프로그램 1 - 맛있는 색깔 이야기

과정 중심의 습식 수채화 수업에서는 교사가 먼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감성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습식 수채화 활동은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을 중심으로 색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색으로 시작해 두 가지 색이나 세 가지 색을 혼색을 체험해보는 색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색의 번짐이나 우연성이 나오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는데, 색은 어린이의 감각과 감정을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감성표현의 성장을 돕는다.

<표 4> 습식 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1

맛있는 색깔 이야기

대상	6-7세	시간	3-40분
학습 목표	1. 젖은 종이에 색이 번지는 것을 관찰하며 느낄 수 있다. 2. 3원색을 번지게 해보며 각자의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3. 색의 시각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미각을 상상해보며 공감각적 감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유아
도입 (5)	학습 환경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수업환경을 조성한다. ▶ 미술수업에 임할 작업복과 재료를 바르게 갖추었는지 설명한다. ▶ 눈 앞에 놓은 재료를 자세히 관찰하며 손으로 만져보고, 오늘 할 수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질문을 한다. -붓의 촉감에 대해 말해보기 -눈앞에 놓인 물감이 섞인다면 어떤 색으로 만들어 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재료를 관찰하고 만져보면서 오늘 수업의 동기를 갖는다. >붓을 만져보며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요 -손바닥을 쓸었더니 손바닥이 간지러워요 -색이 섞이면 무지개 색이 될 거 같아요 -소용돌이 모양이 나올 거 같아요
전개 (20)	수업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펀지와 종이를 나눠주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통해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준다. *붓과는 다른 스펀지의 느낌을 유아가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펀지를 만질때 -외형을 그대로 말해보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지도한 이외에는 다른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한다. >스펀지를 만져보며 -구멍이 송송 나있어요, 못생겼어요

	<p>-눈 감고 만져보도록 하기 -손가락으로 쿡 쿡 찌러보도록 하기 -물속에 잠기듯 넣어보도록 하기</p> <p>▶매끈한 종이위에 젖은 스펀지를 살살 지나가게 해서 적셔지는 과정을 유아에게 보여주도록 한다.</p> <p>*붓을 손바닥에 칠했던 느낌을 되살려 보도록 하며 젖은 스펀지를 도화지에 부드럽고 천천히 칠하도록 유도한다.</p> <p>>젖은 스펀지를 칠할 때 -스펀지를 충분히 주물러 보도록 하기 -물통안에 스펀지를 집어넣어 물을 흡수하고, 손으로 꼭 짜서 흘러내리는 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이 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p> <p>▶빨강부터 차례로 진한 원색 그대로 번지는 모양을 잘 관찰하도록 지도한다.</p> <p>>물감을 칠해 번지기를 할 때 -붓에 물감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하기(물감과 물의 비율 1:1) -서서히 번져나가는 모양새를 보며 유아가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모양-음식이나 곤충등 연상되는 내용 유도, 맛과 냄새 상상해보도록 하기)</p> <p>▶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을 기본으로 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색에 대해서도 번지기를 하도록 유도한다.</p> <p>>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할 때 -3원색(빨강, 노랑, 파랑)을 기본으로</p>	<p>-부드러워요 매끈한 것 같아요 -콕콕 들어가요 말랑해요 -스펀지가 물을 엄청 먹었어요</p> <p>>젖은 스펀지를 만지며 -스펀지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종이가 축축하게 젖었어요</p> <p>>물감을 칠해 번지기를 하며 -붓이 빨개지고 있어요(물감을 섞으며) -꾸물꾸물 퍼져나가요 -바다의 파도같아요 -저건 애벌래가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건 김치예요 빨간김치</p> <p>>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하며 -보라색이 나왔어요</p>
--	---	--

		<p>하여 유아가 원하는 색을 천천히 혼색하며 섞이는 과정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p> <p>-번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급하게 다른 물감을 섞지 않고 과정을 천천히 기다리며 상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번져가는 과정을 충분히 탐색하도록 한 뒤, 원색과 혼합한 색깔에서 느껴지는 색깔의 맛을 상상하도록 지도한다.</p> <p>-혼색이 되는 시각적인 부분과 먹어본다면 느껴지는 다양한 맛을 상상하며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유아가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p>	<p>-초록색이 생겼어요 -무지개 색깔 같아요 -물감이 혼자 막 움직여요</p> <p>>상상하는 시간에 -엄마가 만든 국수맛이 날 것 같아요 -이건 피자예요 -얼음맛이 날 것 같아요 -이건 따뜻한 냄새가 나요 -여기 불난 것 같아요</p>
정리 (10)	정리하기	<p>▶습식수채화의 번지기를 체험해보고 난 뒤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p> <p>-다른 친구의 상상한 내용을 듣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p> <p>-색이 섞였을 때 혼색되어 나타나는 다른 색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p> <p>▶통풍이 잘되는 곳에 작품을 뉘여 잘마를 수 있도록 한다.</p> <p>*추후활동 마른 작품을 가위로 잘라 요리활동이나 다른 놀이에 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p>	<p>>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물감들은 신기해요 서로 막 섞였어요 -빨간색을 칠했는데 보라색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초록색을 보면서 애벌레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가 아이스크림 녹은거라고 했어요 -왜 색이 섞이면 다른 색깔이 나오나요 -말라도 이 색깔이 그대로 있네요</p> <p>▶각자가 그린 그림을 교사에게 제출한다.</p>

과정 중심의 습식수채화 수업을 마친 이후에는 또래 친구들이 그린 습식수채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동은 자신이 그린 습식수채화를 그릴 때와 다른 친구들의 그림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느끼게 한다. 교사가 해 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친구의 그림을 살펴보며 친구의 입장이 되어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습식수채화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기에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아동의 감성 표현 성장에 도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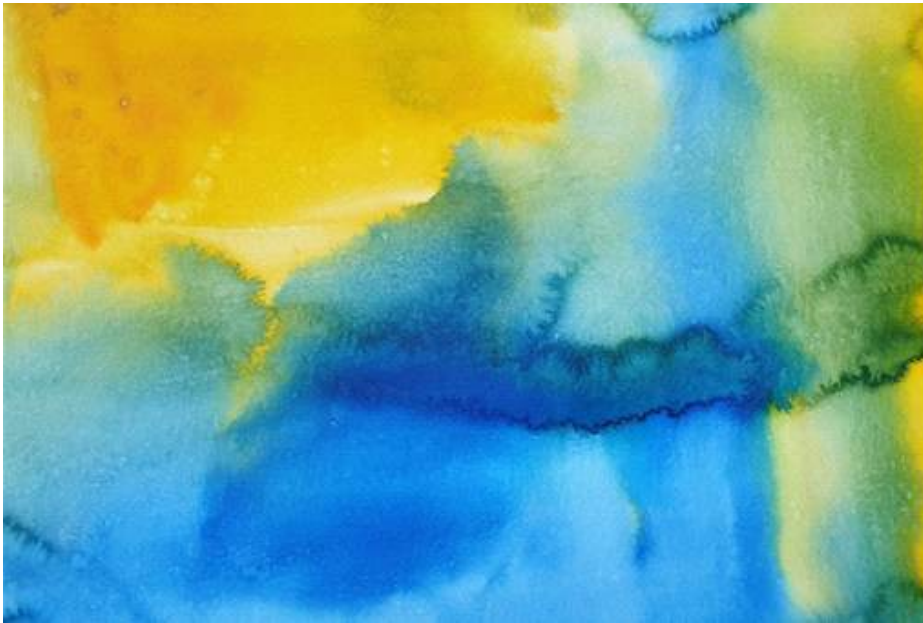
과정 중심의 습식 수채화 수업 중에 실제 그린 작품의 예시는 다음의 [그림 5]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5]은 3원색 가운데 빨강과 노랑 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한 작품이다. 이 때 유아가 이 두 색을 천천히 혼색하며 섞이는 과정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림 4] 빨강과 노랑 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한 작품

다음의 [그림 6]은 3원색 가운데 노랑과 파랑 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한 작품이다. 이 때 번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급하게 다른 물감을 섞지 않고 과정을 천천히 기다리며 상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림 5] 노랑과 파랑 물감을 칠해 혼색 번지기를 한 작품

나. 프로그램 2 - 우리가족 색깔로 나타내기

과정 중심의 습식수채화 프로그램으로 가장 가까워서 관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습식수채화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우리가족 색깔로 나타내기’ 프로그램은 먼저 교사가 가족사진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관찰요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어린이들은 대상을 관찰한 것과 더불어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중심의 습식수채화 활동은 삼원색을 벗어나 대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온전히 드러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과 혼색을 체험해보는 색채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때 표현되는 색깔들보다 대상을 관찰하고 생각하며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다채로운 흥미와 표현심리가 자극된다.

<표 5> 습식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2

우리가족 색깔로 나타내기

대상	6-7세	시간	3-40분
학습 목표	1. 아빠와 엄마, 형, 동생등의 얼굴을 잘 관찰하여 표현 할 수 있다. 2. 색으로 감정을 표현해보고 나타 낼 수 있다. 3. 얼굴색이 살색 하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정을 색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사	유아
도입 (5)	학습 환경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수업환경을 조성한다. ▶ 미술수업에 임할 작업복과 재료들을 바르게 갖추었는지 설명한다. ▶ 재료는 자유롭게 준비하도록 한다. ▶ 각자가 가져온 가족 사진이나 자료를 보고 관찰 할 수 있게 한다. -아빠의 얼굴과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형제자매나 강아지 등 웃는 표정과 우는 표정등을 생각해보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관찰하며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 가족의 얼굴을 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가며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p>>사진을 보며 -엄마는 머리가 곱슬머리에요 -우리집 강아지 털은 하얗고 부드러워요 -동생은 작은 아기에요 -나는 머리가 길고 얼굴에 점이 있어요</p>

<p>전개 (20)</p>	<p>수업내용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지에 가족을 그린다음 채색을 진행하면서 관찰 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얼굴 색이 유아가 생각했을 때 대상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자유로운 색이 표현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얼굴 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 얼굴에 여러색을 칠하더라도 제한하지 않는다 -칠하는 대상의 감정을 생각하며 채색에 임하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가 과정에 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그릴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을 충분히 관찰 한 후 그리기에 들어간다. ▶ 다양한 색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유롭게 칠한다. <p>>얼굴 색을 칠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아지는 지금 분홍색이에요 간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동생이 울고 있어요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자두색이에요 -엄마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엄마는 지금 엄청 매운걸 먹었거든요
<p>정리 (10)</p>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을 보며 각자의 얼굴색에 대해 설명하고, 칭찬하며 질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p>>다양한 질문을 유도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가 그린 다양한 색의 얼굴에 대해 내 생각 말해보기 	<p>>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화가 나면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그림에 화난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친구 그림은 얼굴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얼굴이 하얀색이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가 그린 그림을 교사에게 제출한다.

‘우리 가족 색깔로 나타내기’ 습식수채화 활동이 마친 이후에는 친구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아동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느끼게 한다. 슈타이너는 예술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이 색채를 만나고 색이 들려주는 예술성에 이입이 되었을 때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감성표현을 인간이 사고하여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감성표현과 과정 중심의 습식수채화 활동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인지하고 이를 사고하여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습식수채화 수업 프로그램 특성

	수업 프로그램 1	수업 프로그램 2
	맛있는 색깔 이야기	우리가족 색깔로 나타내기
수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식수채화 체험 - 색깔이 섞이는 혼색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색 표현 - 얼굴 색에 제한 없음 - 칠하는 대상의 감정을 생각하며 채색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유발 - 자유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감정표출 - 감성 표현을 통한 내면세계 능력 향상

제4장 결론

21세기 시대는 세계화와 다양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해 오지만 산업화를 배경으로 발달한 공교육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성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슈타이너 인지학 사상에 근거한 발도르프 유치원의 미술교육은 인간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하는 인지학적 교육론을 통해 아동 개개인이 지닌 기질과 본성을 살피 잠재된 재능을 깨워주고 논리적 사고 이전에 감성을 고양시키는 교수법을 통하여 아동기에 감성교육을 함으로써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예술로서 교육을 파악하는 교육예술론은 교육에서 통합성을 회복하여 온전한 인간을 교육하는 전인교육을 추구하고, 물질만능의 풍조가 만연한 현대에 정신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지학적 교육론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발도르프 학교는 슈타이너의 사회 개혁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발도르프 학교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대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인지학적 교육론은 현대 문명 전반에 대한 비판,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개발과 이용대상으로만 간주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발도르프교육은 우리에게 색다른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간과 세계 그리고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첫째,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에 기초한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예술은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 예술 교과를 중시한다는 의미는 교육을 하나의 예술로서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체,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교육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이런 예술적 체험이 모든 학습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예술 교과와의 통합과 연계성을 통해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강조한다. 각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은 차곡차곡 쌓여 다른 교과와 합쳐지고, 합쳐진 지식은 아이들의 생각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둘째, 인지학적 교육론은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한다. 발도르프 교육은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정신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터전으로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온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셋째, 성적으로 서열화하는 교육, 지적인 교육만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편향성, 관료적 형식주의,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익명성이 특징이 되어버린 학교의 모습을 발도르프 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교육은 유아들의 감성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 교육은 인간의 감성을 일깨우는 행위의 출발이므로 그 자체가 감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미술교육은 감성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이 지향하는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며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사에게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감성 능력 증진을 위한 유아미술교육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을 통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미술교육을 고찰하여 보았다. 슈타이너가 인지학과 색채의 본질을 통하여 유아와 아동들의 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 삶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교육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유아들의 발달 과정에 적합하면서 영혼과 감성을 단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슈타이너의 미술교육 방법 중 습식수채화를 바탕으로 하여 발도르프 유치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치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미술 교과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으며,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재

료를 가지고 수업의 효과를 끌어내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슈타이너의 색채론과 발도르프 유치원, 그리고 습식수채화 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발도르프 유치원의 습식수채화 수업은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정해진 틀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중심으로 물감을 자유롭게 친숙하게 다루게 하여, 습식수채화를 통하여 아동들의 내면세계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인지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과 순수한 색채의 감성과 감성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본 연구가 추가적인 유아 미술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김정임, 『발도르프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서울: 학지사, 2006).
- 마그리트 위네만·프리츠 바이트만, 『발도르프 학교의 미술수업』, 하주현 역, (도서출판 푸른씨앗, 2018).
-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양역관 역, (물병자리, 2000).
- 슈타이너, 『자유의 철학』,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07).
- 오철훈, 『아동조형교육: 기초 아동 미술의 이해』, (경기도: Design C+D, 2008).
- 윤선영,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첫걸음 중 리듬생활 편』, (문음문고, 2002).
- 정윤경,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교 발도르프 학교』, (내일을 여는 책, 2000).
- Hemleben, J., “Rudolf Steiner: A documentary biography,” Henry Goulden Ltd, 1975.
- McDermott, R. “The Essential Steiner: Basic Writings of Rudolf Steiner,” Harper & Row, 1984.
- Steiner, R., “The Philosophy of Freedom; The Basis for a Modern World Conception,” this translation based on the 12th German edition, The RudolfSteiner Press, 1964.
- Steiner, R., “The Riddles of Philosophy,” 1914, Chapter VI, “Modern Idealistic World Conceptions.”
- Steiner, R., “The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supersensible knowledge of the world and the destination of man,” 1904.

< 학위논문 >

-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의 기초 인지학(Anthroposophie)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 김경민, “R.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예술교육론에 기초한 수업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2).
- 김삼숙, “발도르프 학교 습식 수채화를 통한 심상표현 지도 연구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6).
- 김소라, “슈타이너의 습식 수채화를 활용한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육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7).
- 이슬비, “색채 관찰을 통한 수채표현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임영진, “습식 수채화를 통한 서정적 추상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7).
- 정연진, “슈타이너의 색채론을 기반한 유아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1).
- 홍미랑, “습식 수채화를 활용한 색채 감수성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7).

< 학술지 >

-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선묘』, (미술교육논총 제10권, 2000).

- 김성숙,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의 슈타이너 교육예술』, (올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01).
- 김소라, 박연선, 『초등학교 1,2학년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슈타이너의 습식수채화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색채디자인학연구, 제3권, 2007).
- 김재희, 송만용, 서한석,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을 기반으로 한 색채 디자인교육 수업방안 연구 - 전도식기 아동 6세부터 7세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연구 제47권, 2014).
- 송광철, 김정아, 『슈타이너 이론에 기초한 유아 색채 활동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15권, 2014).
- 최재석, 『슈타이너의 색채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8권, 2014).